

IBK기업은행은 200만 소상공인·중소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여성시대 2022.4 (주)문화방송

여성시대

양희은·서경석입니다

4 | 2022 April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김포산단지점 거래고객
거승철강㈜ 김성복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발안산단지점 거래고객
㈜신화셀렉스 손정길 대표

IBK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i-ONE 자산관리

자산관리의 시작
i-ONE Bank
앱에서 경험해 보세요

통합자산서비스
전 금융권 자산 통합 조회
자산 분석 리포트 제공

생활금융서비스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
노후를 위한 연금 조회

직장인특화서비스
신용등급 관리·커리어 관리



IBK기업은행

contents 2022년 4월호







04 **2022 여성시대 특집**
힘내라 청년! 청백전!

17 **이달의 편지**
'특별한 선택'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거승철강㈜ 김성복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신화셀렉스 손정길 대표

80 **코너 속 편지**
'고문관의 길' 외

109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여행의 즐거움

112 **서경석의 스튜디오에서**
22년 전의 약속,
2022년 2월 22일 2시 22분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2년 4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서경석 **프로듀서** 박혜화, 김동현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Heyhoney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2022 여성시대 특집

힘내라 청년! 청백전!

여성시대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특집으로
'힘내라 청년! 청백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그 가족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소중한 사연을 받아
총 60분께 백만 원씩 청년 희망 장려금을 전해드렸습니다.

2022년 여성시대 '힘내라 청년! 청백전!'은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함께했습니다.



20대의 마지막 도전

정자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여성시대를 들으며 컸던 어린아이는 벌써 20대의 마지막 29살이 됐습니다. 남들처럼 대학교 가고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잘 흘러갈 줄 알았어요.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운동의 길을 선택하여 10대 때부터 선수 생활을 했고 특히 고등학교는 체육고등학교로 진학했기에 쉽지 않은 하루하루였지요.

그러다 중요한 진로가 결정되는 시점에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두 번이나 하게 됐고, 체고에 1년 더 남을까 고민하다 부상으로 오래 못 할 것 같아 이제부터 운동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창창해 보였고 10대 때 독하게 이겨낸 강인한 정

신력이 살아있으니 뭐든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이것저것 알바도 해보고 '오지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새로운 경험을 하며 내가 너무 좁은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됐죠.

하지만 깨닫는 마음도 그때뿐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막상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을 알 수 없어서 진로에 대한 방황을 몇 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방황하는 몇 년 동안 잘 사는 친구들과 비교도 많이 하고 열등감도 심하게 느껴 우울증도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세 남매 중 맏딸로서 잘하는 모습, 잘 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철없이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사는 제가 너무 한심해 보였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사는 게 바빠 제대로 자식들의 멘탈을 잡아주지 못한 탓이라며 가정사를 탓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어느 날, 고향인 완도에 그냥 평소처럼 놀러 갔는데 그날따라 해양경찰 함정인 배들을 보면서 내가 저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 상상을 하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는 엄마가 건강 검진으로 입원해 있을 때 옆자리에 입원하신 이모님의 아저씨가 소방관인데 "너, 군인이나 경찰 하면 참 잘할 것 같다" 얘기를 계속해주시기에 저의 진로를 자연스레 이쪽으로 돌리게 됐죠.

원래는 군인을 하고 싶었으나 저의 무릎 상태로는 남자들도 의가사 제대를 할 정도라 시도조차 하지 못했었죠. 일반 경찰보다는 바다를 좋아하고 해양경찰 함정만 보면 가슴이 뛰는 심정이, 전국 시합 결승전을 앞둔 것보다 더 떨리게 만드니 어느새 해양경찰이 저의 꿈이자 목표가 됐습니다.

준비하면서 무작정 학원이 있다는 부산까지 내려갔지만 무릎에 이상을 느껴 검사를 받아 보니 똑같은 곳에 핀을 3번이나 박아 구멍이 헐렁해져서 핀을 다시 빼고 그 구멍을 골반에서 뼈를 떼어내 이식하고 유착시킨 다음 6개월 후에 새롭게 핀을 박는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친 것이 아니라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니 기꺼이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3개월도 준비 안 한 필기시험을 그냥 보러 가서 반은 찍고 왔는데 운 좋게 붙어버려 기뻤지만, 입원한 상태라 실기를 보러 가지 못해 좌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돈을 모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나한텐 해양경찰 말고는 가슴 뛰는 일이 없다, 일단 미쳐보자, 붙어보자 그런 심정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지금 내 나이 때 벌써 결혼하는 친구들도 많고 시험에 붙어서 승진한 사람들도 있는데 내 나이가 너무 늦은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늦게 정신 차린 건 아닌가, 진짜 붙을 순 있는 건가 하는 쓸데없는 생각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독서실이든 스터디카페든 제재 상황이 있었지만 저에겐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작년 11월 시험에선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것이 부담이 됐는지 마지막 과목 5번째 문제를 풀고 있다가 토할 것 같아, 빈속인데 왜 이러지 생각하면서 조금만 참자 생각했는데 억지로 참다 보니 식은땀이 흐르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화장실로 뛰쳐나가 토를 했습니다. 감독관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는데도 규정 사항이라 안 된다며 답안지 마킹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교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렇게 허무하게 시험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그냥 그 자리에서 토하지 그랬냐, 네가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그랬겠냐며 처음엔 화도 내다가 속상하다며 우시더라고요. 아빠는 정 없는 목소리로 그럼 이제 끝난 거냐며 전화를 확 끊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만 포기 안 하면 되는 게임인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생각을 돌렸습니다. 정말 생각 한 끗 차이로 마음을 새로 먹으니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지금은 개편되는 과목에 맞춰 인강을 들어보려고 인강비라도 벌려고 지인네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에도 일하니까 조금 서럽긴 하더군요. 요즘엔 새벽 4시에 일어나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기도 후 운동을 한 뒤 공부를 하고 일도 하는 피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뜨는 별이 가장 밝다고 한 얘기를 항상 기억하면서 마지막 사투에서 승리를 하려고 해요.

꼭 올해 합격해서 합격했다는 사연을 여성시대에 보내고 싶어요. 서경석 님의 공인중개사 합격 소식을 기사로 접했는데 합격 기운을 저에게도 좀 보내주세요. 늘 정겹고 반가운 여성시대! 함께 응원해주세요.

영상제작자의 꿈을 향해

나인성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저는 올해 21살 된 풋풋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수행평가에서 항상 영상 편집을 맡아서 하곤 했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너 이거 잘한다, 재능 있다' 칭찬 들을 때마다 뿌듯했고, 장래 직업으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에 '영상 편집해 드립니다'라고 글을 올려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너는 잘 하니까'라며 당연하게 재능 기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저는 그런 요구를 들어주는 일에 지쳐갔습니다. 그런 요구를 들어주느라 원하는 편집 공부도 못하고, 제 영상을 만들 시간도 없이 늘 마감에 쫓겨 작업해야 했고 하루 4시간 쪽잠을 자고 학교에 가면서 몸 상태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처음 영상을 만들었을 때의 뿌듯함보다 시간이 갈수록 커져 가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도 즐겁지가 않고 짜증만 났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더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노트북이 필요했지만, 그런 노트북은 당연히 고가였고 제가 가진 노트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도 어려워 고등학교에 올라가며 자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갑작스러웠을 자퇴 소식에 사람들은 부정적인 소리만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17살 때 처음으로 사회생활에 발을 디뎠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것보다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력사무소에도 나가고 대형 쇼핑몰 물류센터에서도 일하고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도 일했습니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탓에 일터에서 발생하는 마찰이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 공감대를 나눌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꿋꿋하게 버티다 보니 함께 알바를 하는 형님과 친해졌습니다. 형님과 노래방도 다니고 함께 취미로 볼링을 치면서 형님의 지인들도 알게 됐습니다. 힘들고 지치기만 했던 사회생활 속에서 형님은 제게 정서적 안정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제가 20살이 되는 2021년, 저와 형님은 하던 알바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부당함 때문이었습니다. 근로 시간보다 일을 빨리 끝내면 매니저는 시급을 줄였습니다. 반대로 일이 많은 날에는 초과 근무를 해야 했는데 초과 근무는 시급이 1.5배가 되어버리니 눈치를 주었습니다. 일을 더 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근무 시간표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당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매니저와 갈등을 빚는 일이 많아졌고, 저희는 더 나은 앞날을 위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신생 마스크 공장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문구를 보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마스크의 주재료인 필터와 면을 채우고, 마스크의 모양과 생산 속도를 관리하고,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업무를 배웠습니다. 저는 빠르게 능력을 인정받았고 동료 분들과도 많이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장은 제가 입사한 지 석 달 만에 폐업하게 됐고 저는 다시 백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구직 활동을 해봤지만 중졸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두 달 동안 일을 구하지 못해 고생하다가 작년 3월, 다행스럽게도 일을 구했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된 일은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일인데 전파가 안 터지는 실내 천장 내부에 케이블을 깔고 안테나를 설치해서 통신 전파를 개선해 주는 일입니다. 많이 힘들긴 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경험이다 생각하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덕분에 점점 부지런해지고 있고, 인생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제 자신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4월이면 저는 군 입대합니다. 군에 가서 다시 영상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을 때 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영상을 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영상 공부 열심히 해서 전역 후에는 프리랜서 영상 작업자로 일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지만 그만큼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여태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기

애청자

저는 군대 전역한 지 4개월 된 23살 청년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마 가게에 딸려 있는 작은 쪽방에서 다리도 펴지 못하고 주무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할머니 댁과 친척 집을 옮겨 다니며 살았고 부모님께서 고생하신 끝에 작은 원룸을 얻어 네 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은 저희가 갖고 싶어 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해주려 하셨고, 그저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에 늘 감사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께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어른들께 철이 일찍 들었다는 말을 항상 들으며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전단지 알바 같은 자잘한 일을 하며 용돈을 벌어서 썼고, 빠른 취업을 위해 마이스터고에 진학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마이스터고 대신 일반고에 진학한 후로는 공부보다 알바에 더 오랜 시간을 썼습니다. 학기 중엔 주말 알바를 하고 방학 땐 알바 2개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도 시간이 될 때마다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 12시간씩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장사에 관심이 갔고, 부모님께 대학 진학보다는 장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을 하셨던 부모님께서는 완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무렵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에서 홀서빙을 시작했는데 한 달쯤 됐을 때 매니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저는 매장에서 일을 제일 잘한다는 평가와 함께 매니저가 됐습니다. 사장님으로부터 장사에 대해 제대로 배우며 일했던 시기였습니다.

공부보다 알바를 더 열심히 했지만 예상외로 원하는 대학교에 붙었고 부모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금 같은 과에 친구들만 봐도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고 더 좋은 대학도 많은데 내가 치열한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시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에서 나와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공부보다는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공부로 성공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장사로 성공하기는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안정적인 회사보다는 제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결국

부모님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다니기 싫은 학교를 다니다 군대에 가게 됐고 군대에서도 저는 여전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야간근무나 불침번을 설 때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저를 덮쳐 왔고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장사를 하려면 돈, 밑천이 필요하다! 부모님께 '제가 이만큼 모았습니다'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돈을 벌 수 없었고, 그렇다고 가만있기엔 불안했기에 군대에서 저는 주식과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공부를 하면서도 바로바로 투자할 수 있었고 부동산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좋은 투자자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학 공부는 하기 싫었지만 주식과 부동산 공부는 목표가 있고 꿈이 확실했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을 군대에서 저축할 수 있었고 전역하자마자 저는 부모님께 다시 한번 제 의지를 보여드리자는 생각으로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과 8km 정도 떨어진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예전 경력을 살려 다시 매장 매니저가 됐습니다. 쌀쌀한 날씨지만 가게 배달용 전기자전거를 타고 매일 편도 40분씩 달려서 출퇴근합니다. 다행히도 사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운영하고 계신 여러 가게 중 한 가게의 점장 자리도 제안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대학교수도 겸하고 계신 사장님 밑에서 많이 배울 기회라 생각해서 놓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에 복학을 하느냐, 본격적으로 장사의 길에 들어서느냐 또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새벽 2시에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데 출발한 지 5분쯤 지났을 때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그치겠거니 하고 집으로 향했지만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전거의 배터리가 걱정돼서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사서 씌우고 빗속에서 페달을 밟으며 8km 거리를 달리다가 잠시 터널이 나와서 비를 피했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에서 이유 모를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이 터진 이유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냥 터널 아래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12시간 일하고 비 맞으면서 꾸역꾸역 집에 가는 제 스스로가 불쌍하기도 했고, 전역했는데 친구들도 못 만나고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단 생각도 들고… 그냥 많은 감정이 뒤섞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 엄마의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방에서 제가 이불 뒤집어쓰고 추위에 떨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셨다고 했습니다.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생각에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아파서 잠시 수술했을 때만 빼고 쉬지 않고 일했고 그래서 주위 친구들도 '너는 참 열심히 산다' 자주 얘기합니다. 아직도 주 6일, 12시간씩 일하고 있고 그런 생활이 솔직히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장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제가 이만큼 모았다고 말하는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잘할 수 있다고 잘할 거라고 힘을 주세요. 저의 한풀이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전 매력〉

[이주현] 우리 아버지는 엄마가 좋아하는 '펭수' 성대모사를 매일 연습하십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 엄마는 펭수 목소리만 들으면 깔깔깔~ 웃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술 드시고 새벽에 들어오실 때 펭수 흉내 내면서 들어오신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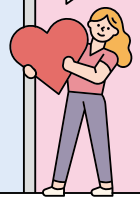
[김유정] 제 남편은 밖에서는 재미도 없고 세상 무뚝뚝해요. 오죽하면 시댁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사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정한 사람입니다. 다 챙겨주고 나름 섬세한 사람이에요.

[김송림] 제 남편은 산책할 때는 손잡고 가기 부끄럽다고 10미터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제 엉덩이 뒤를 졸졸 따라다녀요. 귀요미 강아지랍니다.

[김경주] 우리 집도 서로 이중이 삼중이 다중이라 해요. 특히 우리 남편 주말에는 새집 지은 머리로 종일 있는데 평일에는 아주 말끔하게 하고 다닌답니다.



[이달현] 모임이 있어 아내와 같이 나가면 아내는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고, 생선 가시도 발라주며 이것 좀 먹어봐~ 하며 잘해주는데, 집에만 오면 가시는 제가 발라서 아내 밥 위에 올려줍니다. 밖과 안이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 아내랍니다.



[3344] 저 사실은 벌레가 무섭습니다. 직장에선 깍 소리 지르는 여직원들을 위해 슬리퍼를 휘두르며 벌레들을 슈퍼맨처럼 잡지만 집에 가면 벌레들 정말 무섭고 징그럽습니다. 손바닥으로 쫙쫙 잡아주는 마나님이 있기 때문일까요. 쫏쫏 혀를 차는 마나님의 과잉보호가 문제라 생각하렵니다.

[5281] 우리 남편 근육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약골인데, 얼마 전 제가 계단 내려오다 다리를 접질려 못 움직이는데 절 번쩍 들더니 차에 태우는데 순간 남편의 가느다란 팔뚝이 김종국 씨처럼 보였어요. 완전 반전 매력!

생방송 중 도착한 여성시대 가족들의 문자 모음입니다.

이달의 편지

18 특별한 선택
21 배달은 미뤄두고
24 어린이집 대체교사
28 아파서 미안합니다
31 '아빠의 손맛'
34 그녀의 식사
38 옥인아파트 이웃들
42 긴박했던 한밤중의 화재
45 남편의 도장 가게
48 아빠의 마지막 사진
52 딸을 위한 소원기도
55 돈과 우정
59 백 원짜리 꼬마 손님



일러스트 | **조신애**

Letter 01

특별한 선택

조수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평촌로

저는 이제 막 중2병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온 올해 16살 여학생입니다. 저는 겉으로만 보자면 평범하지만 막상 알고 나면 누구보다 평범하지 않은 가정에서 저를 너무 좋아하는 쌍둥이 남동생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공부보다는 예체능 쪽 활동을 좋아하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합창, 농구, 미술, 복싱,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 등 다양한 것들을 배웠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초등학생 6년이라는 시간은 단숨에 가버리고 중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와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저의 특별한 선택이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저와 동생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야, 앞으로 2년 뒤에 네가 중학교에 가게 되잖아. 멀리 충청남

도 금산에 별무리학교라고 들어봤지? 한 번 체험하러 다녀와 볼래?"

저는 그 학교 이름을 들어봤고 좋은 학교라는 소문도 들었지만 그 학교에 다닐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체험만 하는 거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운 겨울날 짐을 싸서 산골짜기에 있는 학교에 가게 됩니다. 3박 4일 동안 생전 처음 해보는 경험을 많이 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친구도 사귀며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 내가 가야 할 학교는 바로 이 학교구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제가 한 선택을 후회할 정도로 위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긴 온라인 수업을 끝내고 학교에 등교하는 첫날 확진이 된 것도 아니고 PCR 검사까지 마쳤지만 학교만 들어가면 열이 나서 3주 동안 학교와 집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날려버렸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제게 일어나자 '내가 이 학교에 다니는 게 맞나?' 싶었지만 집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탕이 거의 금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귀하고 물도 가끔 안 나와서 찬물로 샤워해야 하는 이 학교가 저는 좋았고, 집에서도 매일 학교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이 쌓이다 보니 번아웃이 찾아오고 MBTI까지 E에서 I로 바뀌어 버릴 정도로 심한 위기였습니다. 관계가 삐걱거리자 모든 것이 제 잘못 같고 자존감도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어요. 친구들의 도움보다는 글로 제 감정을 정리했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간도 지나고 저는 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중학교 3학년 때는 무조건 인도로 이동 수업을 갑니

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로 장소가 바뀌었고 10달 동안 거기서 지내며 방학 2주 동안만 집에 오게 됩니다.

3명의 친구들은 제주도 이동 수업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 친구는 미국 유학, 한 친구는 예고 준비, 마지막으로 가장 친했던 친구도 꿈을 위해서 1년 동안 공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확실한 친구들을 보며 저도 빨리 꿈을 찾아서 빨리 준비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들어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결정이 나지 않았고 결국 제주도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며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도 해놓고 앞으로 가 있을 제주 생활을 위해 나름대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제주도에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선택이지만 제가 원하자 부모님께서는 망설임 없이 지원해주셨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등되는 순간이 많이 찾아오겠지만 저는 그때마다 저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결과가 좋든 나쁘든 모두 특별한 선택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의 삶을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고집부리는 딸이 나가서 좋으시죠? 저 보고 싶다고 울지 마세요. 저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Letter 02

배달은 미뤄두고

애청자

저는 분당에서 배달대행 기사를 하는 애청자입니다.

며칠 전 오전 11시가 살짝 넘은 시간, 이때는 저희 배달 기사들에게는 피크시간입니다. 분당에 있는 작은 마을을 지나는데 바로 근처에서 콜이 뜨기에 잡았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3분 만에 픽업지에 도착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난리가 났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아가씨가 혼자 지지고 볶고 바쁘더라고요. 제 전표가 3번인데 1번이 13만 원어치, 2번이 7만 원어치, 제 음식이 5만 원어치. 아가씨가 거의 울상이었습니다. 달래주려는 마음에 말했습니다.

"바쁘면 좋죠."

"저, 알바생이에요. 평소에는 이렇지 않은데 오늘은 이상해요. 눈물 날 거 같아요."

"사장님은 어디 계신데요?"



"사장님은 알바 가셨어요."

알고 보니 평소에 너무 장사가 안 되어서 한가하다 못해 알바생이 텔레비전만 보다가 퇴근하는 일도 종종 있었답니다. 사장님은 그런 매장에 있는 게 싫어서인지 월세가 급했는지 매장을 알바생에게 맡겨둔 채 다른 알바를 하러 가셨고요.

일단 1번 전표를 빼야 하기에 알바생을 도와서 밥을 푸고 국을 뜨고 기왕에 돕기로 한 거 프라이팬도 잡고 열심히 제육도 볶았습니다. 드디어 1번 음식이 다 됐고 2번 음식을 준비하는데 아가씨가 또 울먹

울먹.

"왜요?"

"어떻게 해요. 2번까지는 밥이 될 것 같은데 기사님 음식에 들어갈 밥이 부족해요."

얼마나 장사가 안됐으면 밥솥에 밥도 10인분 정도밖에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얼른 가게 카드 줘 봐요!"

프라이팬 돌리다 말고 오토바이 타고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즉석밥 6개를 사와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그 와중에도 계속 밥 푸고 국 뜨고 봉지 벌려서 2번 주문 배달 갈 준비하고 그 와중에도 배달 콜은 계속 울리고….

갑자기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배달업체였어요.

"왜 픽업을 안 하세요. 벌써 픽업 시간이 15분 지났어요."

"픽업이고 뭐고 지금 국 뜨고 밥 푸고 정신없이 바쁘니 다시 전화하세요."

결국 배달 시간이 30분이나 훌쩍 지나서 겨우 제 음식이 나왔네요. 아가씨가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험도 해보네요. 어지간하면 배차를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아가씨가 양손으로 프라이팬을 돌리며 고생하고 있고 일회용 도시락이 정신없이 널부러져 있는데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중3 딸이 있는 아빠랍니다. 제 딸도 언젠가는 어느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하는 사람이 될 테고 그때 혼자 하기에는 벅찬 일을 겪을 수도 있을 텐데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준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저런 생각을 해본 하루였습니다.

Letter 03

어린이집 대체교사

김미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저는 올해 결혼 22년 차, 47살의 주부입니다. 저는 지금 어린이집 대체교사 일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대체교사라고 하면 '그게 뭐지?'하고 생소해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 일을 하기 전까진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대체교사가 하는 일은 어린이집 교사가 연차 휴가를 가거나 결혼, 출산,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그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교사랑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아기들을 좋아했어요. 신혼 때 옆집에 살던 동네 언니가 제가 아기들과 놀아주는 걸 보고 "자기, 어린이집 선생님 하면 잘하겠다. 아기들도 예뻐하고 잘 놀아 주네"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옆집 언니 소개로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자격증을 따고 어린이집 정교사로 5년 일하다가 이 대체교사를 알고 나서 지금까지 대체교사로 12년째 일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하는 일에 너무 만족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매주 다른 어린이집에 가서 매주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이 직업은 그게 매력인 거 같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속된 대체교사들은 총 43명 정도 돼요. 한 어린이집에 일주일을 가기도 하고 짧게는 하루도 배치돼요.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날만큼 저희가 배치를 받아서 가는 거죠.

처음 일할 땐 걱정이 되고 떨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주말엔 항상 남편과 사전 답사를 가곤 했어요.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좀 더 빠른 길이 있는지, 월요일에 길 헤매서 늦으면 큰일이니까요.

근데 12년이 지난 지금 사전답사는 안 가지만 일요일에 항상 꿈을 꿔요. 어린이집을 못 찾아서 헤매는 꿈, 늦어서 원장님께 죄송하다고 전화 드리는 꿈 등등 남편한테 꿈 얘기를 하면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일한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런 꿈을 꿔. 베테랑이 왜 이래."

그러게요. 이제 베테랑이 됐는데도 아직은 베테랑이 아닌가 봅니다.

남편은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자기는 좋겠다. 매주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매주 다른 예쁜 아기들도 만나고."

진짜 부러워서 그러는 건지, 저에게 힘을 북돋아 줄려고 그러는 건지 어떤 게 진심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거 같아요.

매주 새로운 선생님과 아이들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긴 해요. 적응할 만하면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고 하니까요.

12년째 하고 있다고 하면 다들 놀라면서 대단하다고 해요. 낯설긴 해도 다음 주엔 또 어떤 아기들일까? 선생님들은 어떤 분일까? 먹는 걸 좋아하는 저는 '밥은 맛있을까?' 기대하고 궁금하고 기다려져요.

요즘 뉴스에서 어린이집 학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뉴스만 보고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잖아요. 가보면 아기들 업어주느라 허리가 망가져서 복대를 차고 일하거나 손목이 아파서 손목보호대를 차고 일하기도 해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루에 수십 번도 더하고, 밥 먹다가 똥 기저귀 갈고 또다시 밥을 먹어야 하고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매주 다른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대부분 어린이집에선 낮잠 시간에 자장가 음악을 틀어요. 그날도 다정한 엄마 목소리처럼 사랑스럽게 노래를 불러주는 자장가였어요.

한 아이가 낮잠을 계속 안 자는 거예요. 토닥토닥해줘도 안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와?" 물으니 "선생님, 자장가 꺼. 자장가 노래 싫어. 자장가 노래 들으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서 못 자겠어"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얼른 자장가 음악을 끄고 "미안해 OO야, 선생님이 몰랐어~"라고 했더니 "아니~ 미안해!라고 하지 말고, 사랑해!라고 해야지~" 하는 거예요. 닭살이 온몸에 돋으면서 콧등도 시큰해지고 울컥했어요. 자장가를 끄니 조금 뒤에 잠이 들었어요.

저는 의례 그렇게 해왔고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아이들을 재울 땐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낮잠을 잔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처럼 오히려 자장가가 엄마 생각나게 만들어 수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날부터는 자장가를 틀지 않았어요. 자장가를 틀지 않았다고 해서 금방 잠이 든 건 아니었지만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니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거 같았어요.

아이들 앞에선 찬물도 못 마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모방의 신이예요. 집에선 어린이집 선생님 흉내 내고 어린이집에선 엄마 아빠 흉내를 내면서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따라 하기도 합니다.

"응, 아니~ 내가 회사에서 월급이 안 들어와서 돈이 많이가 없어."

남자아이가 전화 놀이를 하면서 아빠가 했던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 하고 있었어요. 내용을 들어보니 그 아이 아빠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계신다고 해요. 웃픈 얘기죠.

또 한 아이는 장난감 전화기를 귀에 대고 한 손엔 소꿉놀이 컵으로 홀짝홀짝 마시는 흉내를 내면서 "응~ 나 여기 커피 마시고 있어. 5층 언니도 여기로 오기로 했어. 너도 와~." 짐작하셨죠. 커피숍에 있는 엄마 흉내를 내는 거였어요.

너무도 사랑스러운 천사 같은 아이들과 살고 있어서 매일 행복해요. 제 일이 정년이 60인데 60살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걱정이에요. 저는 60까지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체력관리 하는데 나이 많다고 어린이집에서 싫어하면 어쩌죠? 제 체력이 닿는 한 오래오래 아기천사들과 같이 있고 싶어요. 다음 주엔 또 어떤 예쁜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Letter 04

아파서 미안합니다

애청자

저는 원래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우리 부부와 두 자녀가 평범한 직장에 다녔는데 얼마 되지 않는 월급에 의료보험비가 30만 원이 넘게 나가서 불평을 좀 했습니다. 나는 잘 아프지도 않고 병원 갈 일도 없는데 하면서요.

어쩌다 감기라도 걸려서 병원에 갈려면 회사 눈치 봐야 하고 어렵게 점심시간 빼서 가면 병원 역시 점심시간이라서 쉽게 치료받지 못하고 시간은 또 왜 그렇게 지체되는지 아픈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저렇게 불만투성이였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4월에 갑작스레 일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회사 일밖에 모르던 내가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니 너무도 막연했습니다.

얼마 동안 구직활동을 해보았지만 잘 안돼서 이참에 그동안 못했던 건강검진이나 받아보자 했는데, 위 관련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대학병원에 가라더군요. 소견서 갖고 검사받으러 갔더니 식도암이었습니다. 결과를 듣고 병원 밖을 나와서 걷는데 어디로 어떻게 걸었는지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정신도 혼미했습니다.

3일 후 입원하고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 후엔 물 한 컵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겠더군요. 30초면 다 마시던 두유 한 병을 30분간 씨름해야 겨우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받고 퇴원해서 한 달쯤 있다 보니 가슴 통증이 왔습니다. 돌멩이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을 찢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수술이 잘못된 걸까?' 하루 이틀 불안해하면 갑자기 또 거짓말처럼 괜찮아지고 그러다 또 못 참게 고통스럽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통증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몇 달을 참다가 다시 대학병원에 갔더니 러닝머신 위에서 가슴에 여러 줄을 달고 뛰는 검사를 하더군요. 결과는 협심증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입원해서 심장에 피가 원활하게 돌고 있는지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심근경색까지는 아니라서 약물치료만 하라고 했습니다.

약을 받아와 먹고 있는데 이제는 또 양쪽 어깨가 아파옵니다. 어깨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서 밤새 잠을 설치다가 두세 시간 겨우 자고 일어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도저히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서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동안 죽어라 일만 해오다가 쉬니까 온 몸이 내려앉는구나! 삶의 무거운 짐을 어깨 다리로 받치고 벌어먹으며 살아왔건만 남은 게 이것뿐인가!

병원에서 약 두 시간 어깨와 무릎 MRI 사진을 찍고 결과를 보니 어

깨는 오십견의 일종이라 약물과 물리치료를 해야 하고 무릎은 관절염 말기는 아니지만 연골이 다 닳아서 지금이라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내 몸이 이렇게나 혹사를 당했던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복잡한 마음에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안으로 턱밑까지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더군요. '내 어릴 적, 내가 넘어지기만 해도 달려와 엉덩이 다독거리시며 괜찮아, 울지 마라 하시던 어머니. 8년이란 긴 병환에 어머니는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아아~ 어머니가 너무도 보고 싶다' 생각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나 살겠다고 이리저리 병원에 다닐 때 어머니께서는 이 몹쓸 전염병 때문에 가족 면회도 잘 안 되어 자식 아무도 보지 못하시고 그 먼 길 혼자 외롭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최근에는 목이 아프고 기침이 심해서 혹시나 해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와서 자가격리하며 재택치료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플 때 그래도 의료보험이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덜 했습니다. 고생하는 의료진분들 보면서 아파서 미안하고 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든든한 의료보험과 믿음직한 의료진 선생님들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이제 더 건강해져서 어머니 산소에 가고 싶습니다.

Letter 05

'아빠의 손맛'

이정민 | 부산광역시 동구 홍곡로

제 남편은 군 입대해서 우연한 기회에 취사반에 지원을 가게 됐데요. 그런데 거기가 좋아서 보직을 취사병으로 바꿔 달라고 바꿔 달라고 졸라서 취사병으로 근무했답니다. 요리가 좋아서 제대 후에는 학교 전공도 바꿔서 요리를 시작했고, 졸업 후 식당·뷔페 등에서 일하다가 단체급식 업체에서 10여 년 근무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 둘을 키우기 위해 둘 다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휴직 하면 아이들 돌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은 엄마보다 나은 아빠 휴직 기간이었어요.

아빠의 휴직 기간 동안 저희 집 주방에는 새벽 5시면 불이 켜졌어요. 삼시세끼 모두 아빠가 손수 만들어서 먹였고, 햄버거·치킨·피자·감자튀김·짜장면·탕수육 등 간식과 특별식까지 모두 집에서 해 먹였

습니다. 덕분에 저희 아이들은 “아빠, 이거 시켜줘~”보다 “아빠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만들어 줘~”가 더 자연스러워요.

그걸 알게 된 주위 엄마들이 아이 반찬을 부탁해서 아이들 반찬을 넉넉히 해서 이웃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 해 먹이는 거 양을 늘려서 가게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요리해서 아이들 먹이는 게 좋다고 하고, 아이들 먹을거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한창인 와중에 다들 걱정하는 가운데 2020년 10월 ‘아빠의 손맛’이라는 간판을 걸고 저희의 작은 가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먹이던 재료와 방식 그대로 만들어서 ‘아이와 함께 먹는 건강하고 맛있는 반찬’이 있는 가게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남편은 가게로 나가요. 토일 주말에는 가게 문을 닫기는 하지만 재료 구입하러 다니고, 밑반찬을 만들고, 다음 주 메뉴를 위한 ‘전 처리’ 등을 하느라 가게 문은 닫혀 있어도 가게 안에는 늘 남편의 손길이 머물고 있어요. 재료 손질부터 뒷정리까지 남편 혼자 주방을 맡아요.

반찬 가게 재료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손질이며 뒷설거지까지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서 알바라도 쓰면 어떻겠느냐고 얘기하면 이럽니다.

“지금은 내가 직접 하니까 세척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봐가면서 할 수 있고, 이물질 하나라도 이상한 것은 다 골라내가며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손에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그냥 혼자 할게.”

하루 13시간 이상씩 점심 먹을 때조차 의자에 앉지 못하고 좁은 주방에서 서서 일하는 남편이 안타까울 때도 많아요. 재료도 좋은 걸로만 써서 가끔 거래처 사장님들은 “그렇게 재료 써서 남는 게 어디 있겠느냐”고도 하세요. 화학조미료 쓰지 않고, 아침 첫 시작은 육수 끓이는 걸로 시작하지요. 저희는 6가지 메인 메뉴가 식단처럼 매일 달라요. 메뉴 짜는 데도 며칠씩 머리 싸매는 남편입니다. 용기에도 어찌나 아기자기하게 담는지 데코레이션에도 진심인 남자에요.

남편은 주방에서 요리만 해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정산을 하고, 포장과 손님 응대만 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남편은 수익이나 비용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요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지금이 좋다 합니다.

가끔 제가 월 마감 수익과 비용에 대해 얘기하면 그런 거 따지면 요리를 맘대로 못 할 것 같대요. 예쁘게 담아내고 사람들이 맛있어 하면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게 이름이 ‘아빠의 손맛’이지만 아이들이 다 크고 남편도 나이 들고 나면 ‘할아버지 밥집’으로 간판 바꿔서 무료 급식소를 하고 싶대요. 그게 자기 꿈이고 지금 예행연습 하는 거래요. 작년 여름부터는 아빠 혼자 자녀 키우는 가정에 매일 반찬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편 어깨가 무거워 보일 때가 있어요. 오시던 손님이 안 보이기도 하고 반찬이 남기도 해서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아끼느라 그럴 거라고 위로하지만 속상한가 봐요. 저희는 그날 만든 반찬은 재고 판매하지 않고 전량 폐기하거든요. 모든 재료값이 다 올라버렸지만 그렇다고 반찬값을 몇천 원씩 한없이 올릴 수도 없고요.

“‘아빠의 손맛’ 책임지는 김형준 남편! 내가 일요일에 도와주러 나가서 여성시대 다시 듣기를 틀면 매일 저것만 듣냐고 했지? 여성시대에 꼭 우리 가게 얘기, 우리 남편 얘기하고 싶었거든. 든든한 가장이자 든든한 사장님인 남편, 우리 조금씩만 더 힘내자~ 늘 당신을 응원합니다.”

Letter 06

그녀의 식사

권병훈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제멋대로 누비고 다니는 요즘,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거리에는 신제품 스쿠터와 낡아빠진 오토바이 등 다양한 배달 오토바이들이 달리기 시작한다. 오토바이 뒤에 달린 바구니에는 맛있는 음식이 담겨 있다. 그들은 음식을 최대한 맛있는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늘도 위태로운 도로를 분주히 달리곤 한다.

우리 가게 역시 마찬가지다.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해 오늘도 나는 오토바이 배달길에 나선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자 다들 조심하는지 식당을 직접 찾는 손님이 다소 줄어든 느낌이다. 그런 까닭에 나름 동네 맛집인 우리 가게는 배달 일이 더 많아졌다.

물론 배달 전문 업체를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치솟는 물가 인상에 재료비, 인건비, 월세, 기타 세금을 감안하면 한식을 하는 우리 가게 입장에서는 전문 배달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도저히 수지타산에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였다. 배달은 밀려 들어와 바빴고, 배달 주문이 마감되는 분위기가 되면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이번에는 그릇을 수거하러 온 동네를 다닌다. 그릇을 수거하기 위해 조자룡이 헌 창 휘두르듯 익숙한 방배동을 이리저리 누벼가며 손님들이 밖에 내놓은 그릇이 담긴 봉투를 오토바이 뒤에 올린 드럼통만한 고무대야에 차곡차곡 쌓는다.

종종 먹다 흘린 음식의 양념이나 국물이 질질 새는 날도 있는데 실수로 내 손에 묻으면 요즘 같은 시국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처 화장실에 들러 손을 깨끗이 씻곤 한다.

그런데 오늘, 정말 내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월 장부를 달아서 시켜 먹는 자동차 수리점 옆인데 매일같이 일에 쫓겨 기름밥을 드시는 분들이라 빨리 드시고 난 그릇은 그 옆 일정한 곳에 봉투째 내놓곤 한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그릇을 수거하려고 그곳으로 다가가는데 패딩 차림인 여성이 서 있었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분인가 했는데 그릇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나는 잊지 못할 모습을 목도하고 말았다.

그녀 역시 몹시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이는 40대 초중반쯤 되었을까? 패딩에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녀가 오른손에 쥔 나무젓가락에는 오늘 우리 가게 백반 메인 반찬인 꽁치무조림의 꽁치 몸통 한 덩이가 있었다. 당황스럽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아무 말 못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먼저 움직인 쪽은 그분이었다. 그녀가 젓가락으로 집고 있던 꽁치 한 덩이를 급히 입으로 욱여넣

었다. 꽁치가 어떤 생선인가. 비록 뼈가 두껍고 날카롭진 않아도 잔뼈가 많은데 그걸 한입에 넣는 것도 걱정스럽고 남이 먹고 버린 걸 먹다니 충격 그 자체였다.

"저… 죄송한데 그릇 좀 찾아갈게요."

나는 이상하게도 "헉! 그걸 왜 드세요! 요즘 같은 때 남이 먹던 거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지 못 했다. 그저 그릇 좀 찾아가겠다고 했고 내 말에 그녀는 그릇이 담긴 봉투를 질끈 묶어 내게 건네주었다.

봉투를 고무대야에 넣고 다시 그녀를 바라보자니 너무 충격적이었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마치 내가 그녀의 밥을 빼앗은 악당이라도 된 것 같았다.

오토바이에 올라 출발하려다 뒤돌아보니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오도카니 서 있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멀쩡해 보이는데 혹시 집에서 쫓겨난 걸까? 아니면 노숙? 내가 기다렸다가 그릇을 더 늦게 찾는 게 차라리 나았을까? 온갖 생각이 드는데 내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그녀는 오토바이의 반대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마음이 급해진 나는 일단 그분을 불러 잡았다.

"저기요!"

어떻게 하면 그분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한 끼를 때우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는 부랴부랴 지갑을 열어 만 원짜리 지폐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분 손에 쥐어주며 말씀드렸다.

"방금 전에 제가 죄송해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국에는 남이 먹던 거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로 따뜻한 국밥이라도 드세요. 저희 가게가 여기서 좀 멀어서 모셔가기가 좀 그렇네요. 아까는 정말 죄송해요."

"아… 감사합니다."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내게 고개를 숙이더니 지폐를 받아가셨다. 패딩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넣고 종종걸음으로 가는 모습을 보자니 뿌듯한 마음은 조금도 생기지 않고 마음이 무거워지기만 했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놓이셨을까? 내가 잘 한 걸까? 상처받지는 않으셨을까?

그래도 일은 해야 하니 현실로 돌아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로 돌아와 부모님께 방금 전 사연을 전했다. 형과 아버지도 놀라워하셨고 어머니는 무척 안타까워하셨다.

"데리고 오지 그랬어. 그럼 따뜻한 밥이라도 차려줄 텐데."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나선 후 휴식 시간이 시작되었다. 가게 청소까지 마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늦은 점심 겸 저녁 한술 뜨려고 직원들이 먹을 밥상을 차린다.

오늘 있었던 일 때문인지 음식에 혹시나 욕심을 내지는 않았는지 경계심이 생긴다. 차려진 밥상에 꽁치무조림이 보인다.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남김없이 맛있게 먹고자 애쓴다. 내 과욕에 의해 쌀 한 톨이라도 남겨져 버려지는 음식은 없는지, 만들고 차려준 분에 대한 예의는 잊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그날 나에게 충격을 준 그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문득문득 생각이 난다.

Letter 07

옥인아파트 이웃들

심형철 | 서울 송파구 양산로길

1970년대에는 아파트가 흔치 않았다. 80년대부터 강남이 개발되면서 아파트 붐이 불었으니 70년대엔 아파트가 지금처럼 모든 이의 로망이 아니었다.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이 더 인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서울 시내 한복판 옥인동 산 3번지 옥인아파트. 지금은 산꼭대기 오지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땐 아니었다. 인왕산 기슭에 새로 지은 아파트였으니 제법 인기가 있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꽤 살았다. 최불암·김민자 부부, 고 여운계 씨, 양희은 양희경 자매, 오미연 씨 등 당시 내로라하는 인기 연예인들이 동네 주민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대스타들인데 당시엔 사인 받을 생각도 못 하고 그저 오다가다 마주치면 어색하게 '어? 누군지 아는데…'라는 표정만 지었을 뿐이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양희은 씨는 큰 키에 멋진 청바지를 입고 기타를 둘러멘 모습이 정말 가수다웠다. 누구나 젊은 시절 목이 터져라 불렀던 '아침이슬', 기타 배울 때 가장 먼저 연주하며 흥얼거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런 노래들이 친숙한 때문인지 양희은 씨는 옥인아파트에 아주 오래 살았던 것 같은 기분이다.

이미 세상을 떠난 여운계 씨는 당시 노인 역으로 최고의 연기자였다. TV에서 늘 할머니로 나왔는데 막상 동네에서 보면 너무 젊어서 오히려 현실이 가짜인 것처럼 느껴지곤 했다. 여운계 씨는 아파트 언덕길 끝에 있던 비교적 넓은 공터(정확히는 차 열 대쯤 주차하면 끝인 작은 공간이지만 당시 우리는 그곳을 '광장'이라 불렀다)에서 남편분과 배드민턴을 자주 쳤다. 소탈했고 연예인 같지 않았다. 오미연 씨는 아담한 체구에 늘 웃는 얼굴이었고 동네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잘 어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최불암·김민자 씨의 이야기를 하자면 사연이 좀 있는데 최불암 씨는 당시 최고의 인기 TV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형사 반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촬영으로 바빠서 동네에서는 거의 마주치는 일이 없었고 어쩌다 마주쳐도 그땐 탤런트가 아니라 진짜 경찰인 줄 알았다. 훗날 '최불암 시리즈'라는 허무 개그가 한창 유행했지만 그땐 이미 두 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였다. 김민자 씨에 대해서는 기억이 매우 생생하다. 같은 1동에 살았었다는 것과 무척 아름다웠던 외모도 한몫하지만 동네 사람들과 나름의 스토리가 있었다.

70년대 중반 일본의 전기밥솥, 특히 코끼리표 전기밥솥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오죽하면 일본 다녀오는 사람들은 양손에 그 밥솥을 하나씩 들고 발로도 하나 더 굴리며 입국한다는 우스갯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상황이 그렇다 보니 국내의 많은 회사가 전기밥솥 개발에 착수했고 여러 회사가 경쟁했다. 당시엔 TV나 신문 광고가 최고였는

데 그때 우리 아파트 부녀회 대표가 김민자 씨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김민자 씨가 주축이 되어 옥인아파트 아주머니들로 구성된 주부합창단이 급 결성되었고 그 합창단이 전기밥솥 광고를 찍었다는 것이다.

옥인아파트에 살던 아주머니 십여 분이 검은 스커트와 흰색 블라우스로 된 합창단원 복장을 하고 전기밥솥 홍보 노래를 하면 김민자 씨가 광고 멘트를 했다. 그 광고는 전국적으로 전파를 탔고, 엄청난 화제와 대중의 관심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나는 TV 광고에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 내가 아는 분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신기했다.

우리 엄마와 삼총사로 불렸던 101호, 131호 아주머니도 합창단으로 활동하셨는데 우리 엄마는 아니었다. 엄마는 당신이 음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지 노래하는 걸 엄청 싫어하셨다.

난 엄마가 노래하는 걸 평생 딱 한 번 봤는데 엄마 회갑 잔치에서 하객들의 요청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버티다가 결국 마이크를 잡고 부르셨다. 참석한 친척들 모두 무슨 노래가 나올지 기다렸고 정적이 흐르던 분위기에서 엄마가 부르기 시작한 노래는 "산토끼 토끼야 어데를 가느냐~~~." 엄마는 몹시 긴장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셨지만 우린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박장대소를 했더랬다.

옥인아파트 1동에 모여 살았던 엄마와 101호, 131호 아주머니 삼총사는 30여 년을 이웃사촌 아니 자매로 사셨다.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개울가에서 빨래도 하고, 한겨울 김장도 장마철 부침개도 함께했고, 때때로 쩜 10원짜리 고스톱도 치면서 반평생을 함께하셨다.

우리 엄마는 돌아가신 지 벌써 8년이 되었고, 131호 아주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들었다. 131호 아주머니의 하나뿐인 딸, 당시 인기 잡지 <여학생>의 표지 모델이었던 딸이 압구정동에서 유명한 식당을



하고 있어서 가끔 들러 옛이야기를 나눈다.

101호 아주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외출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다. 101호 집 막내가 그 집의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나의 사촌 동생과 고등학교 동창이라 가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몇 해 전, 두 분이 어렵게 힘들게 문병을 오셔서 오랜만에 삼총사가 뭉치셨다. 그때 나도 오랜만에 두 분을 뵐 수 있었는데 그게 벌써 10년도 더 지난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Letter 08

긴박했던 한밤중의 화재

권유신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지난 1월 22일 밤 11시 50분경,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그곳에 혼자 사는 제 여자친구는 같은 라인 두 개 층 아래에서 불이 나서 바로 위층과 그 위층의 베란다를 통해 시커먼 연기와 매캐하고 메스꺼운 냄새가 닫힌 베란다 창문으로 스며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지방 출장을 간 제게 전화를 해서 말했어요. 아랫집에 불이 났나 보다고, 연기도 계속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전맹 시각장애인입니다. 서울에 일가친척도 없고 같은 시각장애인인 친구가 같은 동 8층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자친구네 집은 아파트 12층이며 불은 10층에서 크게 났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안정시키며 119에 전화하라고 했지만 여자친구가 겁에 질려 있음을 파악하고 재차 진정시키며 "내가 119에 전화를 걸어 줄게. 안심해" 하며 전화를 끊고 02-119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장 가 있는 이천 소방서로 연결되더군요. 119 시스템이 전화를 거는 지역으로 자동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여자친구네 아파트 화재 상황을 전하고, 여성 시각장애인이 혼자 있다고 알렸습니다. 119에서는 전화번호를 묻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 달라"고 전하라며 곧 출동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119에서 금방 갈 테니 기다리라" 하고 저도 긴급히 택시를 잡아 서울 상도동으로 출발했습니다. 길은 막히지 않았지만 마음이 조급해서 시간도 차도 한없이 느린 것만 같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연기 때문에 도저히 못 참겠다"며 8층에 사는 시각장애인 친구에게 연락하고 그리로 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계단은 위험하다, 연기가 올라오면 큰일이다" 말했지만 집에는 연기 때문에 못 있겠대요. 저는 "119가 곧 올 거라"고 하면서 기억나는 대로 "수건을 적셔 코와 입을 막고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잠시 뒤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더듬더듬 계단을 통해 8층에 사는 친구네 집에 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8층은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연기가 계단으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층에서 난 불은 50분 만에 잡혔지만 유독한 냄새는 계속 나고, 현장에서 "모두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 여자친구와 그 친구까지 두 여성 시각장애인은 1층으로 내려와 바삐 움직이는 소방관과 주민들에게 소리쳤다고 해요.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달라고요. 그리하여 도움을 받아 안전한 구역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한편 한 시간 넘게 택시를 달려 서울에 도착한 저는 여자친구와 상봉하여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소방차가 11대, 소방관이 80여 명, 경찰차와 구급차까지 아파트 단지에 꽉 찼다고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제가 도움을 요청한 119구조대원들은 여자친구네 집의 방범창을 뜯고 있었나 봅니다. 여자친구가 8층으로 더듬더듬 찾아갔으니 구조대원들이 불러도 대답이 없었겠지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신고했으니 기다려야 했지만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해서 친구네로 피신했기 때문입니다.

택시에서 불안에 떨던 마음을 내려놓고 있을 때 "모두 진화되었으니 집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8층에 사는 여자친구의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여자친구네 집이 있는 12층 복도로 가는데 현관이 열려있고 방범창도 반쯤 뜯겨 열려 있었습니다. '아, 구하려고 오셔서 뜯고 확인하고 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구조대 분들에게 미안해졌습니다. 허위 신고로 오인하시지 않았을까 하고요.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은 진화되었지만 매캐한 냄새는 계속 나고, 여자친구네 집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무 탄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들어가서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제가 사는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계셨던 소방관, 경찰관님들, 추운 날 한밤중에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돌아가신 할머니 한 분의 명복을 빕니다.

Letter 09

남편의 도장 가게

함종순 | 경북 김천시 개령면

"오늘 뭐 할 거야?"

"왜?"

"시간 되면 퇴근하고 가게 와서 정리 좀 하자고."

며칠 전부터 남편은 가게 정리를 도와 달라고 했어요. 두 달 전, 20년 넘게 해온 가게가 팔렸다고 건물주의 전화를 받은 후부터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팠을 때를 생각하면 잘된 일인데 20년 넘게 하던 일을 관두려니 미련이 많이 남나 봐요.

우리 식구 20년 넘게 먹고살게 해준 남편의 가게. 남편은 40대에 IMF를 맞아 다니던 직장을 잃고 지인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도장 기술을 배웠어요. 생판 모르던 일을 늦은 나이에 배우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위장병에 위궤양까지 얻었지요. 기술을 배워 가게를 차리고서도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며 신경을 너무 써



서 그런지 위천공까지 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남편은 일에 매달렸어요.

덕분에 두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까지 보내고 나니 제2의 병마가 찾아와 작년에 뇌경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경과 의사에게 듣도 보도 못한 "실어증이시네요"라는 엄청난 말까지 듣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기억 상실에 말을 못 할 수도 있고 술을 먹었던 사람이면 알코올 치매도 올 수 있다고 제가 남편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에 53kg 나가던 제 몸무게가 45kg까지 빠졌습니다.

두 아들을 달달 볶아 서울 대학병원까지 가서 원인을 찾으려고 별의별 검사를 다 해봤지만 원인 불명. 병원에선 언제 또 병이 재발할지 모르니 항상 긴장하며 살라 하더군요.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가게 접는데 미련이 전혀 없는데 남편은 70까지는 일하고 싶었는데 가게가 팔려서 2월 말까지만 일하게 됐으니 "이건 내가 일을 접는 게 아니고 쫓겨나는 거"라며 아쉬워합니다. 나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안 그러면 언제 일을 그만두겠냐 했어요. 남편 기술이 아깝긴 하지만 남편은 70까지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70 되면 또 80까지 하고 싶다고 할 게 틀림없으니까요.

우리 아들들은 돈 달라는 소리 전혀 안 하는데 남편은 자기 입으로 "아들이 손자 낳으면 내가 차 사줘야지~" 자기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싶었나 봐요.

어디서 들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몸져누웠는데 요양보호사님한테 복권을 좀 사다 달라고 했대요. "당첨되면 어디에 쓰시려고요?" 물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해준 게 너무 없어서 복권 당첨 되면 아들 주려고요" 하시더랍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들 모습이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남편도 그렇고 아마 아들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무조건 헌신적이겠지요.

어제는 남편과 도장 가게를 청소했는데 곳곳이 온통 먼지투성이었어요. 아쉬워하는 남편에게 "차라리 잘 됐어. 이 먼지 좀 봐. 오래 일하다가는 제 명에 못 살았어"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20년간 남편은 얼마나 많은 먼지를 마셨을까? 그러니 남편 혈관이 온전할까?' 싶었지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남편이 제 차에 광택을 내줬어요. 좋아서 기념사진을 찍었더니 오랜만에 남편 웃는 모습도 보네요.

Letter 10

아빠의 마지막 사진

애청자

대학교 1학년 어느 날이었다. 한참을 꿈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셔서 머뭇거리며 말씀하셨다.

"아빠가 조금 있다가 유람선 타러 가자고 하신다."

"응~ 다녀와."

"아니~ 너도 같이 가자고 하시네."

"싫어."

단호한 내 태도에 엄마는 더 이상 말씀 없이 안방으로 가셨다. 아마도 아빠에게 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리라. 아빠와 격 없이 나눈 대화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우리 부녀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엄마가 내 방으로 오셨다.

"딸~ 엄마 부탁인데 들어주면 안 될까? 엄마 유람선 진짜 타러 가고 싶은데 아빠가 너도 꼭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셔."

엄마의 부탁이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진 나는 온몸에 짜증을 다 끌어모아 소리쳤다.

"아! 짜증 나~ 알았어!"

내 눈치를 살살 보시던 엄마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엄마의 표정을 보는데도 뒤틀려버린 내 감정은 도통 제자리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그날 내 심사가 얼마나 뒤틀렸던 건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내 복장이 기억이 난다. 나는 머리를 귀신처럼 풀어 헤치고 목이 있는 대로 늘어난 흰색 티셔츠에 집에서 굴러다니는 하늘색 트레이닝 바지를 질질 끌고 차에 올라타며 내가 얼마나 가기 싫은지에 대한 반항을 표출했다. 복장에 늘 까다롭고 깔끔했던 아빠 눈에 분명 내 모습은 성에 안 차셨겠지만 백미러를 통해 나를 힐끔 바라본 아빠는 더 이상의 말씀을 삼가셨다. 아마도 딸의 심사를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차에서 내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버릴 모습이 충분히 상상됐을 테니까 말이다. 차 안에 있던 40여 분 동안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엄마도 아빠도 내게 어떤 말도 건네지 않으셨다.

선착장에 도착했고 우리는 곧바로 유람선에 올라탔다. 봄이라고 하기에는 뜨겁고 여름이라고 하기에는 서늘한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었다. 유람선이 출발하자 다소 뜨겁게 느껴졌던 바람이 강바람에 중화되어 한없이 시원하게 느껴졌다. 나는 유람선에 두 팔을 걸어놓은 채 강 물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딸~ 여기 좀 봐봐~."

나는 무심하게 뒤를 돌아봤다가 다시 황급하게 고개를 홱 돌려버렸다. 아빠는 눈가에 일회용 카메라를 댄 채 내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고개를 돌려버린 내게 다시 한번 아빠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딸~ 한 장만! 딱 한 장만 찍어줄게. 웃어봐~."

신경질과 짜증이 솟구쳤지만 한 장만 찍자는 아빠의 말에 나는 짜증난 표정을 거두지 않은 채 아빠 눈가에 있는 일회용 카메라를 바라봤다. 아빠는 한참을 이리저리 각도를 맞추더니 오른손 검지 아래에 있던 셔터를 조심스럽게 누르셨다. 찰칵! 아쉬운 표정을 숨기지 않으신 채 아빠가 내게 검지손가락 하나를 세운 채 말씀하셨다.

"한 번만 웃어주면 안될까?"

"싫어요!"

내 거절은 단호하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나는 다시 유람선 너머의 강물결을 바라봤고, 등 뒤에서 카메라 셔터가 눌러지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사실 이날의 나들이와 사진을 한동안 잊고 살았다. 십년 전 1년여의 투병 끝에 아빠가 돌아가시자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좀 더 살갑게 대할 걸… 말이라도 다정하게 할 걸…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말이 뼈 마디마디에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아빠 생각만 하면 조건반사처럼 눈물이 주르르 흘렀고 나는 점점 흐릿해지는 아빠 모습이라도 기억하고 싶어 친정집에 들러 아빠 앨범을 뒤적였다.

아빠 앨범은 엄마와 결혼하기 전에는 왕성한 활동을 했지만 엄마와 결혼하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활동이 뜸했다. 생전에 가장 최근에 우리와 찍은 사진이라고는 내가 결혼했을 때 그리고 동생이 결혼했을 때 단체 가족사진뿐이었다. 그것도 한참 전이었기에 가장 최근 사진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 눈에 띄었다. 아빠의 반명함 증명사진 8장. 아빠가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라는 건 그것뿐이었다. 돌아가실 때 영정사진으로 쓰였던 사진. 아빠 사진이 이것뿐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 사진을 보는데 한동안 잊고 지냈던 유람선을 탔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의 그 장면과 복장 그리고 그 감정들이 떠오르면서 꽁꽁 묶여있던 후회라는 감정들이 내 안에서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때 유람선 타러 가자고 했을 때 기분 좋게 갈걸. 사진 한 장만 찍자고 카메라를 들이대셨을 때 활짝 웃을걸. 한 장만 더 찍자고 아빠가 말씀하셨을 때 같이 찍자면서 팔짱이라도 낄걸.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내 어릴 적 앨범 안에서 고이 숨 쉬고 있는 사진을 가끔 들춰볼 때면 궁금해진다. 피사체 너머 아빠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셨을까. 삐딱하게만 굴었던 딸에게 무슨 말씀을 건네고 싶으셨을까. 그날 피사체 너머의 아빠 표정이 아빠 복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마음을 조금만 바꿨다면 피사체 너머에서 안으로 들어온 아빠의 모습을 추억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아빠의 마지막 사진이 되어버린 증명사진 한 장을 가져와 지갑에 넣어두고 다닌다. 가끔씩 아빠 얼굴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그 사진을 꺼내서 아빠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 지갑에 다시 넣어둔다. 그러면 자동으로 유람선에서 일회용 카메라를 눈가에 가져갔던 아빠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그 이어짐은 다시 후회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뿐인 감정으로 아로 새겨지는 피사체가 떠오른다.

아빠의 마지막 작품이었던 내 사진. 아빠가 마지막으로 찍었던 증명사진. 두 사진 모두 내게는 아픈 추억으로 새겨졌다.

Letter 11

딸을 위한 소원기도

김성희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저는 올 봄 대학에 입학한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저도 남들처럼 빨리 태어나기를 바라고 태어나서는 얼른 걷기를 바라며 평범하게 아이를 키웠지요. 처음 초등학교에 보낼 때는 한 달 넘도록 아침마다 울면서 등교하는 바람에 '초등학교를 잘 졸업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많이도 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람에 따라 저의 소원도 매일 매달 시시때때 늘어나더군요. 이번에 큰 시험도 잘 치르고 타 지역에 있는 원하는 대학에도 어렵지 않게 들어가면서 저의 소원기도도 끝나나 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기숙사 배정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학교 주변에서 급하게 자취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방을 겨우 구하고 이삿날을 받아놓고 보니 제 걱정과 소원기도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자취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 정말 밥숟가락에서부터 이불까지 챙겨야 할 물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건을 챙기면서 아이에게 사용법과 주의할 점을 얘기해주는데 우와~ 우리 딸, 정말 하나도! 하나도! 모릅니다. 아니, 어쩜 이럴 수 있죠?

일하는 엄마 밑에서 커서 혼자서 밥 챙겨먹고 자기 할 일은 스스로 잘해 와서 큰 걱정 하지 않았는데 저의 완전한 착각이었어요. 칫솔, 목욕타월, 수세미 등은 사용한 다음에 베란다에 말려놓으라니까 "왜?" 이러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내내 그래왔는데 왜 그렇게 했겠냐고 물으니 "음… 엄마가 말려놔서 그냥 썼지!"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매사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엄마가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살았더군요. 쓰레기 버리는 방법, 재활용품 구분해서 내놓는 방법, 설거지… 그래도 설거지는 해보았다고 어느 정도는 하는데 온 바닥에 물투성이입니다. 그리고 방 청소하는 방법, 욕실 정리하는 방법….

"너는 머리가 기니까 머리 감고 나면 머리카락 꼭 정리해. 알았지?"

"우리 집에는 머리카락 없던데? 흘러가는 거야?"

"야, 너도 참! 엄마가 매일 청소하면서 정리한 거지!"

"아~ 그랬구나~."

정말 등짝을 한 대 때려줄까 싶더라고요.

빨래할 때 세제 구분하고, 빨랫감의 양에 따라 세제 양 조절해서 넣기, 빨래한 후 옷 털어서 널 때 옷걸이에 걸 수 있는 옷과 넓게 펼쳐 말려야 되는 옷 구분하기, 냉장고에 넣을 음식과 실온에 보관할 음식 구분하기, 심지어 음식을 조리한 후 비닐장갑 버릴 때 뒤집어서 벗어 버리면 음식물도 안 떨어지고 깨끗이 버릴 수 있다 하니 무슨 큰 깨우침이나 되는 것처럼 "아~" 합니다.

아이고, 두야. 그나마 요즘은 밥이랑 국 등 한 끼 식사가 상품으로



잘 나와서 큰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뭐라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 둘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끓이는 데도 1시간이 걸리고 간장계란밥 하나 만들어보는 데도 30분이 걸리지만 열심히 배우는 모습에 한시름 놓습니다. 그러다가도 시간이 너무 없어서 걱정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 이사 가야 하는데 '좀 더 일찍 가르칠 걸, 평소에 같이 할 걸, 내가 다 해주지 말 걸…' 너무너무 후회됩니다.

자취방에 물건 넣어주면서 마음 약해져 혹시 눈물이라도 보일까봐 억지로 가슴 움켜쥐며 물건을 챙기는데 자취기념으로 월화수목금에 맞추어 입을 잠옷을 다섯 벌이나 주문해서 택배 받고 춤추는 딸을 보니, 하! 다시 소원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딸 부디 빨리 최대한 빨리 졸업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파이팅!

Letter 12

돈과 우정

애청자

저는 올해 불혹의 나이, 마흔이 된 애청자입니다. 이제 막 어설프게나마 '엄마 아빠'를 부르며 안기는 두 돌짜리 아들의 애교를 보며 아내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고 세일즈에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던 터라 저는 조심스레 중고 자동차 판매 일을 해보고 싶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처음 하는 일이라 서툰 게 많겠지만 아내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보라고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도 종자돈이 필요할 거라며 만약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 오신 오천여 만 원을 흔쾌히 내주셨습니다. 아내도 처음이니까 당장 수익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맞벌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해주어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 중고차 판매 일을 하는 친구 J에게 연락했습니다. J는 저와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손을 잡고 다녔던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서로 다른 대학에 가고 군대를 가면서 잠시 연락이 끊기기도 했었지만 가정을 이루고 다시 만나니 더없이 반가웠습니다.

전부터 제가 세일즈를 하면 잘할 것 같다며 함께 일해 보자고 제안했던 J는 기다렸다는 듯 제 연락을 반겼고 함께 일을 시작한 것이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J를 따라다니며 차량의 사고 유무나 교환 흔적, 시세 등을 공부했습니다. 중고차는 판매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판매할 차량을 얼마나 싸게 매입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 친구는 오랜 시간 영업을 해서 타고 다니던 차를 팔겠다며 연락해 오는 곳이 많았고, 자연스레 저는 장인어른께 받아온 사업자금을 조금씩 빌려주게 됐습니다. 차량이 팔리면 친구는 빌려준 돈에 몇 십 만원의 이자를 더해서 갚으며 "넌 지금 당장 차를 팔아서 돈을 벌기는 힘들 테니까 당분간은 내가 어떻게든 네 돈을 굴려서 기름 값이라도 벌게 도와줄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차례 돈을 주고받았고 어떤 때는 장인어른께서 주신 돈을 전부 가져가서 아내가 돈을 더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주위의 걱정 어린 시선에도 저는 항상 같은 사무실 그것도 제 옆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 무엇보다 우리의 30여 년 뜨거운 우정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고 친구 J는 점점 사무실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락하면 그 친구의 아버지께서 운영하고 계신 장어 음식점이 잘 돼서 최근에 2호점 오픈에 본인이 투자 중이라 정신이 없다고 중고차 판매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친구들과 그 장어집에 가보면 제법 큰 규모에 코로나 상황에도 손님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친구에게 일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어언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제가 일하고 있는 매매상사 대표님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 J가 매입해 둔 중고 차량 3대가 손님이 구입한 일도 없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다며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다. 너랑 J가 오랜 친구 사이인 건 알지만 이 업종에서는 투자를 빌미로 돈을 빌려서 도망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행여라도 금전 관계가 있으면 빨리 회수해라. 알았지?"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그때까지도 저는 '에이 설마 걔랑 나랑 30년 된 친군데 지금 하고 있는 음식점도 그렇게 잘되는데 설마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하니 이미 난리가 났더군요. 저 말고도 다른 딜러분들, 지인들, 한동네에서 자란 동창들까지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크게는 몇 억 원까지 돈을 빌려줬다며 다들 J를 찾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연락이 닿은 J는 일이 잠시 꼬인 거라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유를 부렸지만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날로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없던 저는 급한 대로 카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고 사장님께 사정하여 간신히 차량을 매입,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들과 아내, 또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장인어른을 생각하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공황 장애란 병만 얻었습니다.

친구가 운영한다던 장어 음식점에도 찾아갔는데 친구는 이미 종적을 감췄고, 어릴 적 한동네에서 보았던 그 친구의 아버지께서 가게를 지키고 계시더군요.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고 생각하고 매달려 봤지만

이미 많은 채권자에게 시달렸던 친구의 아버지는 저를 문전박대하며 이 가게는 엄연한 내 가게이고, 나도 아들과 인연 끊고 사니 알아서 하라며 경찰을 불러 저를 쫓아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게 앞 주차장에 털썩 앉아 있던 저에게 "너무 안타깝네요. 근데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가게 영업에 방해가 안 되게 합법적으로 하는 1인 시위나 고소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힘내세요"라며 위로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동안 모은 자료를 챙겨 경찰서에도 갔지만 J는 이미 이런 일을 계획했던 건지 금전거래 초반에는 약속한 돈을 돌려주고 다시 빌려 가는 방법으로 사기의 정황을 교묘하게 피해 갔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이 저를 포함 현재까지 20여 명, 피해액은 25억 원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지만 정작 그 친구는 나타나지는 않은 채 채권자들에게 '음식 배달을 해서 한 달에 조금씩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문자만 간간이 보내옵니다. 친구의 아버지는 찾아간 사람들에게 "그러게 왜 우리 아들한테 돈을 빌려줍니까? 돈이라는 게 원래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 겁니다"라며 당당하게 말합니다.

지쳐 있는 저에게 장인어른께서는 "그 돈 없다고 길바닥으로 쫓겨나는 것도 아니니까 인생의 큰 경험했다고,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고 아들 생각해서 힘내라" 말씀하시며 봉투에 만 원짜리 몇 장 놓고 가셨습니다. 가족의 응원이 담긴 돈도, 30년 우정도 모두 잃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Letter 13

백 원짜리 꼬마 손님

강정식 |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화롯불 같은 가슴을 가진 땅콩 아줌마가 있어요. 그분은 분식집을 운영하세요. 땅콩 아줌마는 유난히 앞머리 숱이 없어 이마 위가 훤하고 키는 땅콩만합니다. 엉덩이가 쑥 나와서 걸을 때 오리처럼 뒤뚱뒤뚱, 눈은 황소 눈처럼 크고 쌍꺼풀이 선명하며 웃을 때는 눈웃음까지 곁들이니 해바라기 꽃처럼 환합니다.

"우리 엄마는요. 키가 작아서 사람 많은 곳에서는 안 보여서 못 찾을 거예요."

그 집 막내아들의 말에 한바탕 웃은 적도 있었습니다.

식탁이 네 개뿐인 작은 분식집에서 땅콩 아줌마 혼자 음식을 만들고 서빙도 합니다. 주 메뉴는 떡볶이와 순대, 라면, 냉면, 국수, 떡만둣국, 김밥입니다. 아침에 일찍 청량리 도매시장에서 순대와 떡, 어묵, 채소를 사 오토바이에 싣고 와서 다듬고 씻고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

십니다. 멸치와 대파, 무를 썰어 넣고 푸욱 끓여서 육수를 만들고 떡만둣국 주문이 들어오면 그 육수에 떡과 만두를 넣고 끓이다가 계란을 풀고 김가루와 대파를 넣어 한소끔 더 끓여주십니다. 국수도 삶아서 그 국물에 말아줍니다. 가게는 작지만 아주머니의 깔끔한 손맛에 손님은 제법 많습니다.

혼자 정신없이 바삐 일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 제가 틈나면 도와드립니다. 물론 돈은 받지 않아요.

"아주머니, 시간제 파출부라도 한나절 쓰시지 그러세요."

"글쎄 그러면 좋겠지만…."

아주머니는 웃음으로 넘기는데 절약하느라 그러겠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서글서글한 눈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한껏 웃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꾸밈없는 순수함에 옆에 있는 사람도 절로 즐거워집니다.

점심 때 한바탕 손님을 받고 나면 설거지 그릇이 개수대에 수북이 쌓입니다. 보기만 해도 심란합니다.

"저 그릇은 언제 다 씻어요?"

"더 많이 쌓였으면 좋겠는 걸~."

오후 두세 시쯤이면 흐느적흐느적 찾아오는 꼬마 손님이 있습니다. 예닐곱 살쯤 먹어 보이는 그 꼬마가 오면 땅콩 아줌마는 매번 무척이나 반가워하세요.

"어서 와라. 뭐 좀 줄까?"

"떡볶이요!"

"아빠도 집에 계시니?"

항상 같은 질문을 하시죠.

"네~."

아이는 짧게 대답하고 약간 멋쩍은 듯 큰 눈을 껌뻑거립니다. 아주머니는 알아들었다는 듯 웃으며 김밥 3줄과 떡볶이 2인분을 싸줍니다. 그럼 아이는 100원을 내밉니다. 아주머니는 100원을 받으면서 얼굴 가득 웃음을 담고 "고맙다. 조심해서 가라" 하고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문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 100원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아이가 나가자마자 물었습니다.

"아는 아이에요?"

"아니…."

"그런데 왜 8천 원어치를 싸주고 100원만 받아요?"

"예쁘잖아…."

삐삐 마르고 구정물이 줄줄 흐르는 것을 보면 예뻐서 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집요한 제 질문에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도 꾀죄죄해서 물어봤더니 엄마는 외국에 돈 벌러 갔고 아빠하고 둘이 산다고 하더라고. 사정이 뻔하지 뭐. 불쌍해서…. 너무 말랐잖아. 내가 좀 덜 먹으면 되잖아."

"그럼 100원은 왜 받아요? 받지 말지."

"100원이라도 받아야 또 사러 올 것 같아서…."

그 소리를 듣고 나니 땅콩 아주머니가 정말 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땅콩 아줌마는 누구를 도와 줄만큼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직장도 잃고 집에 누워만 있고 노환이 심한 시어머니가 있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약값 대기도 힘들고 4남매 등록금 낼 때가 닥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언젠가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사시는 땅콩 아줌마. 저는 이분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해집니다.

이달의 손편지



할아버지, 힘내세요

김태홍 |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안녕하세요! 양희은 할머니 서경석 할아버지
아참 서경석 아저씨라 불러 달라고 했죠?
딸이 저랑 똑같은 나이라서 ㅋㅋ
저는 제작년 고3년때 어린이날 여성시대 방송
되었던 청주에 사는 김태홍 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요.
힘내고 가게에 제 할아버지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요.



작년에 위암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일을 그만
두셨어요.
그리고 1년 가까이 일을 못하시고
작년 12월에 찐 수선 이라는 수선집을
개업하게 되었는데요.
몸이 안좋으시니 자유롭게 일을하시고 자주 쉬어야
하니 백화점에선 일을 할 수 없으셔서
가게를 차리게 되었는데 몸도 안좋으신
할아버지께서 손님이 너무 없어
스트레스 받아 또 아프실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제 할아버지께 힘을 주세요.



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손자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안 받으시면 그냥

있으니 항상 힘내시라고 전해 주실 거죠?

제 편지라도 읽어 주신다면 많이 힘이

나실 것 같아요.

할아버지 이젠 아프지 않고 건강하셔서

제가 태권도 5품까지 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사랑해요.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 밖에 없는 손자 드림



P.S

손자가 2학년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가서 할머니 집에서 늘

여성시대를 듣다가 편지를 보내게 되어

두 분과 전화 연결로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이 되었는데,

지금은 3학년 ~~초등학교~~이라 여성시대를

듣다가 이 코너가 뭐하는걸 알고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해서 또 한번

추억을 만들기로 했어요.

곧 4학년이 되는 손자에게 최고의 손자라고

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2022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올해의 글제 내 인생의 두 번째

올해가 2022년이어서 일까요?
유독 '2 (또는) 이'라는 말에 눈길이 갑니다.

첫사랑만큼이나 애틋하고 절절한 두 번째 사랑,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지나 맞이한 두 번째 인생,
낯설고 서툴렀던 '처음'을 지나 맞이한 수많은 '두 번째'
형제자매 중에 둘째로 태어난 분들의 사연,
1번에게 가려진 2등, 2번, 2인자들의 이야기,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 인생의 두 번째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연을 2022년 여성시대 봄 글잔치~ 신춘편지쇼 앞으로 보내주세요.

- **응 모 방 법** • 온라인 : 여성시대 홈페이지 '신춘편지쇼' 하단 게시판
  • 손편지 :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신춘편지쇼〉 앞 (㉾03925)
- **응 모 기 간** 3월 14일(월)~4월 17일(일) 자정까지 * 손편지 접수는 4월 15일(금) 우편소인까지 유효
- **수상작 발표** 5월 2일(월)~5월 6일(금) 여성시대 방송시간
- **시 상 내 역** 최우수 각 500만 원 (1명) 우수 각 300만 원 (2명) 가작 : 각 200만 원 (3명)
  일선 : 각 100만 원 (5명) 장려 백화점 상품권 각 30만 원 (10명)
  * 상품 및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입니다.

여성시대 사진방



[2734] 우리 남편은 부부싸움하고 나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밥을 지어놔요. 강낭콩 연두색 콩 까만 콩 등등 넣어 예쁜 밥을요. 제가 밥솥 열다가 예쁜 이 밥을 보고 나면 화가 풀려버려요.



[6328] 여기는 청도 미나리 작업장입니다. 새벽부터 일하고 있어요.



[1528] 가지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9194] 봄철 농사 준비 중입니다. 하우스에서 감자를 심기 전 감자 모종을 자르고 있습니다.



[6767] 날씨가 풀려서 쑥 뜯어 왔습니다. 봄 향기가 나네요.



[9958] 저는 시각장애인인데 40년 동안 뜨개질을 해왔어요.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오늘의 추억

글/그림 2B

경기도 파주시 송화로의
여성시대 가족 장흰나귀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자격증 수업을 받고 있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줌으로 4주 교육을 마치고
현장 실습 온 첫날



그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저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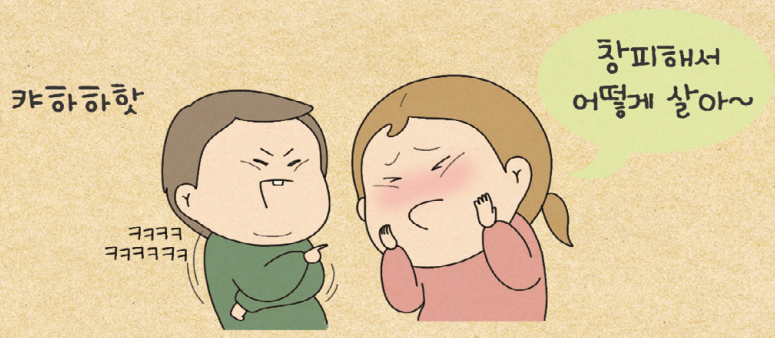
줌 수업 마지막 날
음성을 최대로 줄이고 남편과 수다를 떨던 제가







미처 음소거 버튼을 누르지 않아
저와 남편의 투닥거림은
서른다섯 명의 학생에게 모두 생중계되었고



그렇게 저는 온 동네방네 소문내며
부부 싸움을 한 사람이 되어버렸답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신용 하나로 경인지역 최대 철강회사로 성장하다

IBK기업은행 김포산단지점 거래고객

거승철강㈜ 김성복 대표

글 | **권내리**(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거승철강은 경인지역 최대 종합철강재유통 회사다.
유통센터와 가공센터를 이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레이저, CNC모형절단기, 대형자동톱, 절곡, 샤링기, 펀칭기 등
최대 규모의 가공설비를 갖추고 있다. 다품종의 철강재와
다양한 가공품을 최상의 품질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으며
신속한 납기로 항상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87년 거화철강으로 창립한 거승철강은 1994년 거승철강주식회사로 법인 전환 후 매년 최대 매출을 갱신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김성복 대표는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한 사업을 30년 넘게 운영하며 업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신용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처음 100평도 안 되는 매장에서 월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회사 부지가 2,700평이 넘어요. 직원도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35년 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단 한번도 적자나 손실이 난 적이 없어요. 그저 열심히 일했고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매출이 향상되었고, 인지도가 쌓여 업계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새벽 5시면 회사문을 열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단 한번도 결제를 미루는 법 없이 제날짜에 변제하며 신용을 쌓았다. 이런 그의 노력 덕분일까. 현재 거승철강은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국내 내로라하는 철강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연매출 천억이 넘는 경인지역 최대 철강기업으로 성장했다.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IMF를 겪은 기업인들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김성복 대표 또한 IMF 시절 큰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위기에 강했다. 자고 일어나면 도산하는 업체가 쏟아질 정도로 어려운 때였지만 그는 어음이 부도나서 빗발치는 항의 전화를 피하지 않고 대응하며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부도난 어음을 다 변제하려고 노력했지만 IMF가 장기간 이어지다보니 가진 자금이 다 떨어졌어요. 당시 지인들의 도움으로 어음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좋은 지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거승철강도 없었을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손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회사가 도산되다 보니 원자재가 시장에 쏟아져 나왔고 그것들을 저렴하게 사들인 후 되팔아 손실본 금액의 8~90%는 회수할 수 있었다.

평소 주변인들에게 쌓아놓은 신용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위기를 발판 삼아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됐다. IMF라는 시련이 오히려 거승철강의 신용을 더욱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런 시련을 극복한 거승철강은 현재 높은 재무건전성을 자랑하는 안정적인 기업이 됐다. 김성복 대표는 매해 연말 차입금을 제로로 만들어 은행 빚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보증보험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아 협력사와 고객의 신뢰를 얻고 직원들에게도 회사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 담보거래와 신용거래가 많은 업계 특성상 기업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억씩 나가는 보험료도 아깝지 않다는 설명이다.

IBK기업은행 김포산단지점 김재국 지점장 또한 거승철강의 재무건전성을 칭찬했다.

"거승철강은 믿음이 가는 기업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연말에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회사의 재정 상태가 튼튼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때문에 은행뿐 아니라 협력사들에게도 불안감을 주지 않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고객들뿐 아니라 직원들과 금융권의 신뢰까지 얻고 있는 거승철강이 앞으로도 더욱 승승장구하길 기대한다.





거승철강 김성복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김포산단지점 김재국 지점장

거승철강 김성복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안정적인 경영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어라.
2.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은 무한 재산이다.
3. 부채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빌려라.

거승철강㈜

대 표 김성복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147
전 화 032-564-3300
홈페이지 www.keoseung.com

기술력으로 국내 전기레인지의 역사를 새로 쓰다

IBK기업은행 발안산단지점 거래고객

㈜신화셀렉스 손정길 대표

글 | **권내리**(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신화셀렉스의 역사는 우리나라 인덕션레인지의 역사다. 오로지 기술력 하나로 업계를 선도하며 국내 전기레인지의 표본이 되었다. 이제 설계부터 제조와 생산까지 모두 가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에 '신화셀렉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도전한다.

신화셀렉스는 1991년 백라이트 생산업체 신화인터텍의 전자사업부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국내 최초로 국내 기술을 이용해 인덕션레인지를 시장에 내놓았지만 대중의 인지도가 낮았던 탓에 연간 10억 원 내외의 매출에 그쳤다. 미미한 매출을 이유로 회사에서 인덕션레인지 사업을 철수하려 하자 당시 전자사업부를 이끌고 있던 손정길 대표는 직원 8명과 함께 나와 신화셀렉스를 설립한다.

"그때가 2010년도였어요. 당시에는 콘도나 식당에 1구와 2구 중심으로 전기레인지가 설치되었고 대부분 수입 제품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이 크진 않았지만 미래에 안전과 환경 이슈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전기레인지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신화셀렉스도 수출에 주력했다. 하지만 중국 제품하고 부딪히면서 가격경쟁력에서 밀렸고



일부 철수한 후 국내로 눈을 돌려 국내 주방에 맞는 3구 인덕션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가장 큰 난관은 전력이었다. 큰 전력이 필요한 제품의 특성상 고용량의 전류를 감당할 수 없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안전상 많은 문제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신화셀렉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용 전력에 맞는 제품 개발에 매진했다. 그 결과 '전력제어 분산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아 한국형 전기레인지 시대를 열었다.

"전력제어 분산기술을 활용해 별도의 전기 승압 공사 없이 일반 콘센트에 전력을 꽂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레인지를 개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관련 제품의 KC 인증을 취득한 것이 저희 신화셀렉스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이자 자랑입니다. 전기레인지는 큰 전력을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요, 신화셀렉스의 핵심 기술인 '전력제어 분산기술'이 안전한 제품을 만든다고 자부합니다."

신화셀렉스는 2013년 SK매직과 손잡고 자사의 특허 기술을 이용해 첫 제품을 출시했고 전기레인지가 많은 가정에 보급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인덕션이 인기를 끌면서 국





내 및 해외 관련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중 많은 업체가 업계 선두주자이자 기술력을 갖춘 신화셀렉스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 출시하였다.

이처럼 신화셀렉스는 오로지 기술력 하나로 지금까지 성장해왔다. 작은 업체가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과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기술력 덕분이었다고 자랑하는 손정길 대표는 이미 초창기부터 R&D에 집중해왔고, 지금은 서울에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기술개발에 더욱 힘쓰고 있다.

초창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ODM 매출이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는 자체 브랜드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020년도에 매출 240억을 달성했어요. 그 전해보다 무려 4배 가까운 성장이었죠. 그런데 자체 브랜드 출시에 주력하다 보니 작년에 매출이 187억으로 조금 줄었어요. 매출이 좀 줄더라도 먼 미래를 보고 자체 브랜드 개발에 힘을 쏟고 있어요. 올해는 신화셀렉스라는 브랜드를 업계에 알리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에요. 혁신적인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IBK기업은행 발안산단지점 허순옥 지점장은 "공장 부지를 매입할 때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신화셀렉스의 기술력은 업계 최고"라고 칭찬하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는 신화셀렉스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날이 머지않았다.





신화셀렉스 손정길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오직 기술력으로 승부하라.
2. 미래 시장을 예측하라.
3.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라.

㈜신화셀렉스

대 표 손정길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은행나무로 566-22
전 화 031-8059-6036 **홈페이지** www.selecskorea.com

코너 속 편지

장용의 단·필·충
81 고문관의 길
86 묵'욕'수행
93 신의 손자

사랑탐구생활
96 형 장가보내기
100 어머님의 간섭

주말엔 투유
104 아빠, 우리 행복하자
106 아들아, 미안하고 고맙다



일러스트 | **조신애**

장용의 단·필·충

고문관의 길

이진규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1996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머리를 빡빡 깎고 들어간 군대에서 6주간의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제가 가게 된 곳은 전경대였습니다. 제가 의경과 함께 시위 진압을 하는 전경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경은 훈련소에서 받은 훈련 외에 추가로 2주간 봉술과 방패술 그리고 제식훈련 등을 한 번 더 받아야 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연찮게 피엑스(PX)에서 근무하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선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선임 왈, "신병 잘 들어. 여긴 진짜 꿀이야 꿀~ 전경 피엑스병은 기본적으로 훈련이랑 교육이 열외거든. 그뿐이냐. 먹고 싶은 간식을 밖에서보다 더 먹어.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나 휴가 갈 때마다 '애가 살이 또 쪄서 왔네. 너는 정신 차리라고 군대 보냈더니 거기서 만날 놀고 먹냐?' 이러면서 만날 뭐라 하신다니까."

피엑스병 선임과 대화를 나눌수록 전경대 피엑스병은 정말 꿈의 보직 같았습니다. 먹고 싶은 과자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자유시간도 넉넉해 보였습니다. 군대 햇병아리였던 저에게 욕망의 싹이 움트는 순간이었지요.

"여기서 근무하려면 어떤 자격과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러자 선임은 비범한 것은 원래 평범한 데 있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뭐 별로 특별한 건 없고 행정반에 티오(T.O.)가 나야 뽑는데 그게 잘 안 나. 그래서 선임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으면 추천되거나 부대 훈련에서 고문관으로 찍히면 소대장님이 피엑스로 보내기도 하더라."

그날로 저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힘이 솟더군요. 즐거운 마음으로 2주간의 신병 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아 중대장님께 신고식을 하던 날, 마침내 첫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 뭐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없나?"

"저는 중대원들의 간식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피엑스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래? 사회경력은 있나?"

"예,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2년 알바했습니다."

중대장님은 저의 대답에 웃으셨습니다.

"지금은 피엑스에 티오가 없으니까 일단 2소대로 가서 근무해라."

역시 정공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법! 저는 또 다른 희망을 떠올렸습니다.

"부대 훈련에서 고문관으로 찍히면 소대장님이 피엑스로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 고문관이 되는 거야!'

그날부터 저는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역경과 고난이 몰아쳐도 이를 악물고 충실한 고문관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전경대는 시위 진압이 없을 땐 부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주로 제식훈련, 봉술, 방패술, 총검술 등입니다. 육군과 의경을 반반 섞어 놓은 느낌이죠. 저는 제식훈련 때 모두가 우향우를 하면 혼자 좌향좌, 모두가 좌향좌를 하면 혼자 우향우를 하고, 모두 '뒤로 돌아'를 할 때 혼자만 180도 한 바퀴를 돌아 거꾸로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몸에 배어 있는 정상적인 사고를 일부러 다르게 한 번 더 생각해서 타고난 바보처럼 하려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결과는 언제나 낙오, 열외. 매번 따로 남아서 혼나고 기합받고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고지가 눈앞이다! 해내자! 고문병! 가즈아! 피엑스 근무!'

그러다 긴장이 풀려서 어쩌다 저도 모르게 잘해버리는 날이면 소대장님이 칭찬이 격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너도 잘 할 수 있어!"

그럼 저는 바로 그 순간 저의 실수를 인지하고 소대장님의 칭찬이 끝나기 무섭게 초심을 챙겨 다시 고문관의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소대에서 매일 한 사람씩 저에게 붙여 모든 제식훈련을 책임지고 가르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일과 후 훈련은 어느 정도 하는 척했습니다. 소대장님이나 중대장님이 안 계실 때 기합을 받으면 정말 엄청나게 무식하고 살벌하게 맞았기 때문에 그때는 대충 잘하는 척하다가 다음날 교육 시간에는 다시 초심 모드로 봉술을 순서와 관계없이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찌르고 오와 열을 모르는 천둥벌거숭이처럼 뛰어다니고 사격할 땐 일부러 애써 제

표지판을 피해 옆 사람 표지판 아니면 허공에 명중시키느라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보다 못한 중대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너는 무슨 애가 그 모양이냐? 내가 9년째 군대 생활하지만 너 같은 고문관은 처음 본다. 너 학교는 나왔냐?"

"대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뭐? 너 같은 애가? 대체 어떻게 대학엘 들어갔냐?"

"네! 저희 학교는 정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대장님의 지휘봉으로 머리통을 세게 맞았지만 평상시 원산폭격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프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대원들의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저 역시 그런 그들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라. 오늘은 너희가 웃지만 내일은 내가 웃을 것이니. 나는 이제 완벽한 고문병이 되어 전경대의 파라다이스, 피엑스 근무를 떠날 것이야.'

그리고도 한참을 저는 매일 완전무장을 하고 기합을 받느라 등에 땀 마르는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정·신·통·일'을 외치며 연병장을 돌았고 그러는 동안 전경대 시계도 돌고 돌아 저도 드디어 일 계급 진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행정반 마이크에서 저를 찾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행정반 선임들이 며칠 후면 전역을 한다. 그래서 말인데 자네 피엑스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드디어 제가 꿈을 이룬 겁니다! 이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던가!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조롱, 산전수전을 겪었던가! 만감이 교차했지만 저는 얼른 마음을 추스르고 겸손한 자세로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내무반으로 돌아와 더플백을 챙겨 행정반으로 가는 저의 발걸음은 흡사 자유를 찾은 한 마리 새와도 같았지요. 그러나 피엑스 근무가 포함된 행정반 생활은 제가 들은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달라도 완전 달랐습니다. 전경대 특성상 부대원들은 시위 진압으로 부대를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정작 피엑스에서는 할 일이 없었지요. 대신 산처럼 쌓여 있는 행정 업무를 도와야 했고 행정반 부대원이 적은 관계로 소수 인원끼리 밤에 불침번을 서다 보니 매일 잠 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부대원들 고생하는데 행정반이라고 편할 생각 말라며 내무반 분위기는 어찌나 무섭던지 차라리 빡세게 훈련받고 푹 쉬는 일반 소대가 훨씬 좋았습니다.

지나가던 중대장님이 저를 보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너네 기수는 운도 좋아서 밑에 애들도 많이 들어와 편하다던데 너는 뭐 하러 행정반에서 와서 이 고생을 하냐? 네 동기들 내무반에서 TV 보며 좋다고 누워 있는데 넌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이네. 쯧쯧. 그러니까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돼."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경일 때는 전역을 앞둔 선임들이 많아서 일경이 됐을 땐 제 위로 선임이 별로 없었는데 행정반으로 와보니 여긴 선임 후임 상관없이 엄청난 업무량에 잠을 잘 수도 없고 피엑스 간식도 다 돈 주고 먹어야 했습니다. 으아! 피나는 노력과 인내를 하기 전에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억울해서 자다가도 침대에서 이불을 차고 또 차고 허우적 발차기를 몇 번씩 하는지 모릅니다.

장용의 단·필·충

묵'욕'수행

서진교 | 경기도 부천시 부광로

청소년 시기에 방황을 많이 하다가 종교를 가지게 되면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그렇게 방황하더니 어제도 옆집에서 너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 어찌나 바른생활을 하는지 너만 지나가면 동네 후광이 비쳐서 가로등도 필요 없다고. 정말 고맙다 아들."

더 이상 욕도 안 하고 늘 환한 미소로 살다 보니 주변에서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입대는 25살이란 늦은 나이에 했습니다. 입대하고 보충대를 거쳐 훈련소에서도 소대 내 맏형 역할을 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화내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늘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맏형으로서 항상 앞장서려고 했고 동생들도 잘 따라주었습니다.

"훈련병, 너무 무리하는 거 같은데? 허리가 많이 안 좋나?"

"아닙니다! 군인은 정신력! 이 정도는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의무실에 누워서 찜질을 받으며 훈련에 합류했고 각개전투에서 포복하다가 팔꿈치가 다 까져서 피가 흥건할 때도 다들 만류했지만 끝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서진교 훈련병, 정말 괜찮습니까? 너무 아프면 쉬어도 됩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동기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들 서진교 훈련병에게 박수쳐 줍니다. 이런 자세 본받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군대에서도 바른생활 사나이로 통했지만 저에게도 몇 번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첫 번째는 소대 동기들 간에 주먹다짐이 벌어졌던 날입니다.

"뭐야? 동기들끼리 주먹다짐을 해? 나라 사랑이 동기 사랑인 거 모르나?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한다. 실시!"

조교의 불호령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몇 차례 반복하니 힘들어서 머리가 어질어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쳐 쓰러질 때쯤 조교가 다시 외쳤습니다.

"어깨동무 풀고 피티 체조 20회 실시! 마지막 번호는 외치지 않는다. 알았나?"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린 모두 후들거리는 다리로 헐떡거리며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드디어 끝이 보인다는 생각에 없던 힘도 짜냈고 마침내 고지가 보이던 바로 그 순간 "스물!" 안 그래도 주먹다짐으로 이 사단을 만든 동기 녀석이 이번엔 마지막 구호, 스물을 외치고야 만 것입니다. 분위기가 싸해지고 모두가

침묵하던 그때! 제 입술 근육이 풀리면서 정신줄도 풀려버렸고 제 속마음이 여과 없이 그대로 송출되어 버렸습니다.

"아후, 이런~ 씨~ 삐리리리~."

그렇습니다. 바른생활 사나이, 부대의 '파더 테레사'라 불렸던 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순간, 동기들도 조교들도 제 눈도 휘둥그레 모두 한마음으로 놀라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았던 제 오랜 묵언수행, 아니 묵'욕'수행이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당황한 조교는 "얌마, 너 왜 그래? 너 원래 이런 놈 아니잖아. 앞으로는 다들 이런 불미스러운 일 없게 똑바로 잘한다. 알았나? 해산!"

동기들은 제 욕 덕분에 살았다며 좋아했지만 묵'욕'수행에 실패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풀린 욕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특히 화생방 훈련 때는 화생방 실에서 뛰쳐나오면서 몇 년 동안 쌓아놨던 욕을 눈물 콧물과 함께 대방출. 그렇게 후련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훈련소 4주 차 야간행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첫 행군이었기에 긴장되면서도 오랜만에 부대 밖으로 나간단 생각에 우린 모두 들떴습니다. 훈련소 정문을 지나 행군을 시작하는데 길 건너편에서 한 여성분이 밭을 매고 계셨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민간인 모습이 신기해서 쳐다봤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

"이 자식들, 정신 안 차려! 지금 행군 중이다! 한눈팔지 않습니다."

동기들 모두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후 앞만 보며 행군했는데 이번엔 노란색 어린이집 차에서 아이들과 함께 내리는 한 여성분이 보였습니다. 무척이나 아름다우시더군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혼나면 안 된단 생각에 저는 맏형으로서 서둘러 정신을 차리고 조교의 눈치를 살폈는데 조교마저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예



넋이 나가서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군을 마치고 화생방도 마치고 드디어 마지막 관문, 야간행군이었습니다. 계속된 훈련으로 저는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심해졌고 그 소식을 들은 분대장 조교가 따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계속 아픈데도 참고 훈련을 받는 것 같던데 무리하지 말고 야간훈련은 쉬어도 좋다."

"아닙니다. 끝까지 동기들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 정말이지 너란 녀석 못 말리겠구나. 언제든 아프면 바로 얘기해라."

"네! 알겠습니다!"

저를 부럽게 쳐다보는 동기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군장을 싸고 발바닥에 반창고를 붙이고 전투화 끈을 최대한 조이고 힘찬 구호와 함께 늦은 밤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습니다. 참아보려 했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조교님을 불렀습니다.

"저… 조교님… 잠시만…."

"왜 그래? 많이 아파?"

"아니 그게 아니라… 소변이 너무 급합니다."

"뭐? 저쪽 건너편으로 뛰어가서 3초 안에 해결하고 오도록. 대오를 빨리 따라가야 하니까 서둘러!"

조교님이 가리킨 곳으로 저는 냅다 뛰었고 도착과 동시에 빛의 속도로 바지를 내렸는데 갑자기 무언가 푹 바지와 함께 제 몸이 내려갔습니다. 늪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곳은 물웅덩이 진흙으로 엉겨 있던 곳이었고 겨우 빠져나와 보니 전투화와 전투복은 물론 팬티까지 홀딱 젖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했지만 이미 늦은 터라 조교님께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젖은 전투화, 젖은 팬티를 입고 행군을 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전투화 안에서는 파도가 쳤습니다. 발은 전투화 안에서 수영을 했고 그 축축함과 불편함, 미끌거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불편했습니다. 남들은 발에 물집이 잡힐까 전전긍긍하던 시간에 제 발은 진흙물에 잡아먹히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팬티였습니다. 축축한 팬티

도 불편한데 걸음을 뗄 때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조금씩 제 엉덩이를 잡아먹는 듯한 느낌이랄까? 젖은 팬티가 바지에 쓸려서 조금씩 말려 올라가는 중이었고 그러면서 점점 제 엉덩이를 조여 왔습니다. 사각팬티가 삼각팬티가 되고 삼각팬티가 어느새 티팬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젠장, 야간행군에 티팬티라니! 아직 35km나 남았는데 이런 티팬티의 공격을 받으며 행군이라니? 젠장! 삐리리~ 삐리리리리~'

한 번 터진 욕은 속에서 멈출 수가 없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티팬티의 조임 공격에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조교가 물었습니다.

"몸이 안 좋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네 몸에 집중해라. 그리고 어디든 아프면 솔직하게 말해라."

"솔직하게? 아… 아닙니다! 몸은 정말 괜찮습니다. 안 아픕니다."

"정말이지 너란 녀석, 못 말리는 바른생활이구나. 알았다. 너의 완주를 응원한다."

조교님의 그런 응원까지 받고 나니 더더욱 티팬티 때문에 잠시 낙오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군대는 눈물 젖은 빵이라더니 제게 군대는 물에 젖은 전투화와 티팬티였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걸었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때때로 들려오는 구호 소리와 동기들의 파이팅 소리에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엉덩이골 사이로 파고드는 티팬티를 밀어내며 걸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반환점에 도착. 동기들은 황급히 정비를 마치고 컵라면에 물을 붓는 순간! 저는 인근 풀숲에 달려가 전투화에 가득 담긴 물을 빼고 양말을 갈아 신고 골사이로 돌돌 말려 들어가고 있는 티팬티를 빠르게 검거! 색출! 저의

둔부를 해방케 했습니다.

돌아와 컵라면과 초코바와 음료수를 나눠 먹는데 그곳이 천국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제 생전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힘내서 남은 행군을 이어갔고 단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병 시절 따뜻하게 잘 보살펴주신 소대장님과 조교님 덕분에 몇 번의 위기를 모두 잘 넘길 수 있었고 감사한 마음에 저는 첫 휴가 나오면 꼭 찾아뵙겠단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첫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훈련소로 인사 간 날, 난리가 났었지요. 위병소에서 제일 먼저 저를 발견한 조교님이 행정실에 무전을 날리고 다른 조교분들 다 뛰어나와서 환영해주셨습니다.

"이야~ 진짜 반갑다! 다시 인사 온다는 훈련병 그렇게 많았는데 정말로 온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소대장님도 저를 안아주시며 정말 올 줄 몰랐다고 감격한 얼굴로 설렁탕도 사주고 제 중대와 소대를 묻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하셔서 "어, 나 훈련소 양 상산데 여기 너희 부대 서진교 이병 나하고 밥 먹고 있다. 휴가 나왔다고 훈련소까지 찾아왔네. 얼마나 기특하냐. 그래 3중대 3소대 서진교, 좋은 친구니 잘 보살펴줘라. 내가 나중에 전화해서 확인할 거다. 그래 잘 좀 부탁한다."

저희 자대 소대장님에게 전화까지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군 생활까지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었지요.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훈련소 소대장님, 조교님들, 그리고 우리 동기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때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들 잘 살아내고 계시겠지요?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 그때처럼 서로 얼싸안고 왁자지껄 떠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용의 단·필·충

신의 손자

남정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2010년 1월 초, 1사단에 입대하여 21개월간 복무했습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군 생활 중 많은 훈련을 받지 않고 전역한 '신의 아들'까지는 아니고 손자쯤 됩니다.

첫 번째는 화생방 훈련. 저는 군 생활 중 단 한번도 화생방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신병교육대에서 한 번, 군 생활하면서 유격훈련 중 두 번, 그렇게 평균 세 번 정도의 화생방 훈련을 받는데 저는 신병교육대 시절엔 얼음 깨는 작업에 동원되느라 빠졌고, 자대에서는 군 생활 직무였던 경리 업무 때문에 유격훈련 중 급 복귀하여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경리 업무도 엄청 힘들고 피곤했지만 눈물에 콧물, 오장육부까지 다 쏟는다는 화생방 훈련만 피할 수만 있다면 다시 돌아간다 해도 경리 업무를 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피한 두 번째 훈련은 혹한기 훈련입니다. 보통 겨울 입대면 혹

한기 훈련을 받으면서 군 생활 시작하고 전역하는 동안 유격훈련 두 번 받습니다. 여름 입대면 전역하는 동안 혹한기 훈련 두 번, 유격훈련 한 번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 1월 입대인 저는 한 번의 혹한기 훈련을 꼭 받아야만 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서 걱정과 두려움에 떨며 훈련 준비를 마친 월요일 새벽, 새벽부터 사이렌이 울리면서 출동 연습을 한다고 들었는데 웬일인지 아침이 되어도 사이렌이 울리지 않더군요. 알고 보니 사단장님이 전날 밤 많이 내린 눈을 치우는 게 먼저라며 혹한기 훈련을 하루 미루고 제설 작업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하루 미뤄지는 바람에 저는 또 엄청난 행운을 맞았지요.

월요일 오전 제설 작업을 마치고 점심 후 중대로 올라오는 길에 행정보급관님을 마주쳤는데 보급관님께서 "너는 훈련 명단에서 뺐으니까 지금 바로 사단 후문으로 가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문으로 달려가 보니 당시 파주지역에 구제역이 유행하고 있어서 곳곳에 소독 초소가 생기고 있었는데 그날 저희 사령부 후문에도 새로운 소독 초소가 생겼고 세 개 중대가 3교대로 돌아가며 초소에 인력 지원하게 됐는데 제가 그 첫 번째로 당첨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혹한기 훈련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지요.

소독 초소 근무도 나름 힘들었습니다. 8시간 3교대가 아니라 4시간씩 6교대다 보니 새벽에 자주 일어나야 했거든요. 그래도 따뜻한 내무실에서 잘 수 있었으니 제가 신의 손자였던 것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피한 훈련은 군 전투지휘 검열훈련. 군 전투지휘 검열이란 군단 또는 그 상급 부대인 군사령부에서 사단을 평가하기 위해 하는 훈련입니다. 사단 전체가 출동하여 훈련하고 평가받는 자리라서 거의 실제 전시 상황에 버금가게 훈련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모두가 피하고 싶을 만큼 힘든 훈련이지요. 그런데 그 훈련 시기가 미정이던 어느 날, 저희 부대로 다른 행사 일정 하나가 먼저 전달됐습니다.

"파주영어마을에서 매년 국방부와 협력해서 여는 영어 캠프 알지? 올해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문이 왔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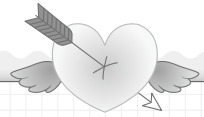
그것은 제가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캠프! 가면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한다던 바로 그 캠프! 그러나 짬이 되지 않아 신청할 생각도 못 했던 바로 그 캠프 소식을 제가 제일 먼저 듣게 됐으니 이건 기회라는 생각에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인사 과장님, 그 캠프 제가 가도 됩니까?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습니다. 군대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운 좋게 사단에서 딱 2명 모집하는 인원에 들어 캠프에 가게 됐습니다. 며칠 후 그 마의 군 지검 훈련 일정이 나왔는데 영어 캠프와 정확히 같은 주 같은 요일, 4박 5일 일정까지 꼭 겹치게 잡혔더군요. 캠프 참가 인원은 이미 국방부에까지 보고된 상황, 그렇게 저는 또 군 생활 중 가장 힘들다는 훈련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우들이 같은 파주 하늘 아래에서 전쟁과도 같은 훈련을 치열하게 치를 동안 파주영어마을에서 타 부대 전우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치열하게 더 재밌게 놀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물론 매일 밤 중대장님께 보고 겸 점호 전화를 드릴 땐 영어 공부가 얼마나 어렵고 고된지 연기하느라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도 안 힘든 데 힘든 척하는 거 그것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훈련을 피하는데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힘든 훈련은 다 피한 녀석! 그래서 '신의 손자'로 불렸던 녀석! 그게 바로 접니다.



사랑탐구생활

형 장가보내기

배우빈 | 경기도 오산시 금암로

삼 형제 중 유일하게 홀로 지내는 마흔 살 넘은 형을 볼 때마다 어머니는 "이제 나 죽으면 너희 형만 혼잔데 안쓰러워서 내가 어찌 눈을 감노" 밥 먹듯이 걱정을 하셨고, 저 역시 형이 맨날 혼자라고 밥 대신 아이스크림에 과자, 가공식품만 먹으면서 배가 남산만 해지는 걸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도 동생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형 장가보내기 프로젝트!

주변 인맥을 총동원해서 소개팅을 잡아보려 했으나 형의 나이만 듣고도 모두 퇴짜! 그러던 와중에 저의 시야에 들어온 한 사람! 바로 우리 회사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사 분이었어요. 2년 전, 베트남에서 오신 분인데 이름은 아리! 항상 밝은 미소에 한국말도 제법 잘했습니다.

"아리, 베트남에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 그런 거."

"아, 그래요? 그럼 한국에는요? 여기도 없어요?"

"응. 근데 왜 물어?"

"내가 좋은 사람 아는데 소개해줄까 해서요. 어때요? 생각 있어요?"

그러자 그녀는 한참 웃다가 묻더군요.

"누군데? 베트남 사람이야? 아님 한국 사람?"

저는 조금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형이에요. 한국 사람."

"형? 당신 형? 근데 아직 솔로야? 당신도 나이 많은데? 형 몇 살이야?"

"나는 결혼했고 우리 형은 아직이에요. 올해 44살이고요. 아 참! 아리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 나도 많지. 나 34살이야."

저는 속으로 '나보다 어리잖아? 근데 왜 자꾸 반말이지' 싶었지만 외국인이고, 또 우리 형수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생각하며 계속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우리 형,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만나 봐요."

하지만 그녀는 몇 번이나 사양하더군요. 그래도 작은 희망을 가지고 여성분을 설득하면서 저는 형에게도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은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고 있어! 베트남 사람이면 나랑 말도 잘 안 통할 텐데. 게다가 몇 살? 나랑 11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외국 여성이라 해도 그렇지. 그건 아닌 거 같다."

그러자 옆에서 조용히 듣고 계시던 어머니가 형의 등짝에 강스파이크를 날리시면서 "야! 야! 야! 니가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야? 동생이 형 장가보낸다고 이렇게나 노력하는데. 으이구! 한 번 만나보기나 해!"

그렇게 형은 어머니가 설득해주셨고 저는 식당에 갈 때마다 끊임없

이 아리 씨에게 우리 형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형 진짜 착해요. 얼마나 순진한지 여자는 만나보지도 못했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진짜 성실해요. 한 직장에서 지금 20년째 일해서 결혼할 준비도 다 되어 있어요."

저의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먹혔는지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나 할 때쯤 그녀가 저의 어깨를 탁 잡더군요.

"음… 그 오빠, 만나볼까? 이번 주말 어때?"

그렇게 형의 소개팅은 이뤄졌습니다. 천만다행인 게 무뚝뚝하고 말수가 없는 형은 오히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그녀와의 데이트가 더 수월해 보였어요. 서로 말없이 한참을 지켜보다 음식을 먹고 창밖을 보고. 마냥 어색해하는 형을 그녀는 뭐가 재밌는지 마냥 웃으며 보다가 살짝 놀리기까지 하더라고요.

"말 없어요?"

"아…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나, 한국말 조금 해요."

"저는 한국말을 못할 것 같아서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착각했네요."

그리곤 또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니까 "한국말은 오빠가 못하는 거 같은데요? 하하~ 말을 진짜 안 하네."

저는 그렇게 답답한 형을 지켜보다가 혹시 제가 옆에 있어서 그런가 싶어 얼른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형을 기다리는데 금방 올 거라 생각했던 형이 밤늦도록 오질 않더군요.

"야야, 이거 좋은 예감이 드는데."

"그러게! 형이 이렇게 늦는 거 처음이지?"

형은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왔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어땠냐고 묻는 저와 어머니에게 쑥스러운 듯 "음… 작은 단칸방에 살더라고요. 집까지 데려다주고 왔어요"라고 말하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지요.

"됐다~ 된 거 같아."

형의 앞날에도 환한 빛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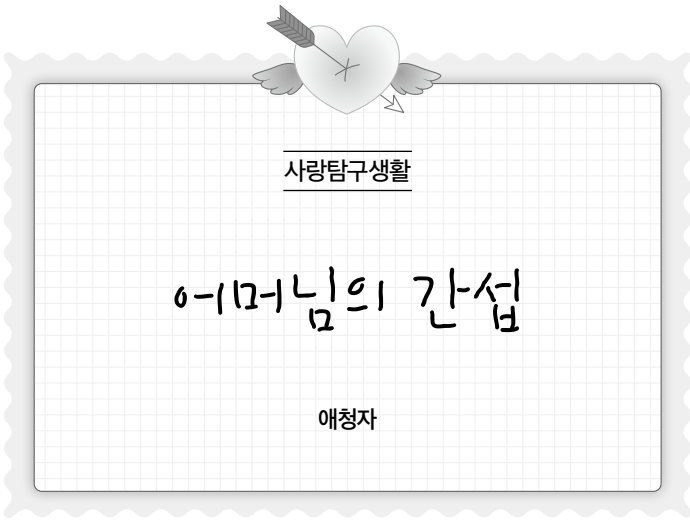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점심시간 아리 씨는 평소와 다르게 저의 식판에 푸짐하게 반찬을 올려주며 "밥 많이 먹어요" 안 하던 존댓말까지 하더군요.

퇴근길엔 웬일로 형이 회사 앞에 와 있기에 "어? 형 웬일이야? 나한테 무슨 할 말 있어?"라고 다가갔는데 형은 말없이 저를 지나쳐 제 뒤에 오던 그녀에게 "가방 주세요. 제가 들게요. 저녁 아직 안 먹었죠? 제가 맛있게 하는데 아는데 거기로 가요." 그리곤 아무렇지 않게 저를 그림자 취급하고는 둘이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했지만 그런 두 사람의 뒷모습에 제 마음까지 풍성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형은 하루하루 달라졌고 주말이면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더니 마침내 그녀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까지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던 무뚝뚝한 형이 식장에 들어서기 전 저에게 흰 봉투를 하나 건네더라고요. '금일봉인가? 얼마나 들었을까?' 들뜬 마음으로 열었는데 봉투 안엔 형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고맙다. 너 때문에 다시 살게 됐어>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편지에는 저에게 고마워하는 깨알 같은 마음과 앞으로 형수에게 모든 걸 다 주면서 살겠다는 형의 다짐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 약속 그대로 오늘도 행복을 볶으며 잘살고 있답니다.



사랑탐구생활

어머님의 간섭

애청자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얼마 전 남친의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동갑내기 친구예요. 2년 전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사귀는 동안 싸웠던 적이 거의 없고 싸워도 금방금방 잘 풀어서 저희의 연애는 정말 순탄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지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고, 그 후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해져서 고민입니다.

문제는 남친의 부모님을 만나 뵙기 전부터 시작됐어요.

"자기야, 혹시 자기 몇 시에 태어난 지 알아?"

"내가 태어난 시간?"

"응 엄마가 자기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간 좀 알려 달래."

"어머, 우리 궁합 보시려나? 어머니 그런 거 많이 믿으셔?"

"많이? 글쎄. 집에 일 있을 때마다 보시긴 했던 거 같아."

"그래? 난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저는 평소에 점을 믿지 않지만 궁합 정도는 많은 사람이 보니까 이왕 보는 거 잘 나오기를 바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인사를 드리기로 한 날이 다가왔고, 저는 어머님 나이대에 좋다는 화장품과 꽃바구니, 홍삼까지 사서 긴장된 마음으로 예비 시부모님 댁을 찾았어요. 남친의 부모님은 인자한 미소로 반겨주셨고 점심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희 궁합을 봤는데 잘 나왔다며 좋아하셨어요.

"어머 정말요? 저희 궁합이 좋대요?"

"그래. 얼마나 다행이니. 내가 애 입시 때부터 그 집을 다녔는데 그 집이 아주 용해. 잘 맞춰. 재관이 삼수하는 것도 다 맞췄고 마지막에 동남쪽에 있는 대학 갈 거랬는데 그것도 딱 맞았잖아."

"우와! 진짜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서 너희 결혼식 날짜도 받아다 줄게. 괜찮지?"

그때까지도 저는 좋은 날짜에 하면 좋지라는 생각으로 동의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받아오신 날짜가 12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더라고요.

"일요일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은 모두 천주교라서 일요일엔 성당에 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을 더 원한다고 미리 말씀드렸던 거에요. 그리고 12월이면 너무 겨울은 아닐까요?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지방에 많이 계셔서 결혼식 날 혹시 눈이라도 많이 오게 되면 도로 상태도 걱정이 돼서요."

"아니, 근데 그 집에서 이 날짜가 제일 좋대. 너희가 이 날짜에 결혼

을 해야 양가 집안이 화목하고 네가 행복하게 잘 산다는데 어떻게 딴 날을 잡니?"

날짜를 듣고 제 부모님도 굉장히 난감해하셨지만 시어머님 의견이 워낙 완강하셔서 설득이 어려웠어요. 남자친구도 이번 한 번만 어머님 말씀을 들어드리자고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희 집안이 양보해서 결혼식 날짜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어머님의 간섭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에도 수시로 전화하셔서 "얘~ 바쁘니? 내가 지금 그 집에 물어봤는데 네 신혼집 말이다 한강을 중심으로 북서쪽이 좋다네. 너희가 그쪽 땅이랑 기운이 잘 맞는데!"

"네? 북…북서쪽이요? 남자친구 회사는 남쪽이고, 제 회사는 동쪽인데 북서쪽이면 둘 다 너무 멀지 않을까요?"

"얘는~ 서울 안에 도로가 좍좍 깔려 있고 버스 지하철 안 가는 데가 없구만! 뭐가 멀다 그래. 그리고 너희가 그쪽에 살아야 애가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

"애…애기요?"

"그래~ 결혼하면 애기도 가져야지. 혹시 너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면 회사를 옮겨. 북서쪽에 있는 데로."

모든 것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은 아직 집을 본격적으로 구한 것도 아닌데 벌써 또 이사 날짜부터 받아오셨고요. 제 '기'가 유독 약해 보인다며 부적을 받아오셔서 늘 지니고 다니라고 하십니다. 아이는 몇 살에 낳아야 좋다, 집안 커튼은 무슨 색깔로 해라 시도 때도 없이 톡과 전화를 하셔서 저를 힘들게 하세요. 남친은 순한 성격으로 어머님의 뜻을 잘 거스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좋았던 남친과도 이 문제로 점점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남친은 "결혼할 때까지만 적당히 맞춰드리고 결혼한 후에는 우리끼리 알아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면 되지 않을까? 우리 그때까지 조금만 맞춰드리자~"라고 하는데 저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남자친구의 모든 점이 좋지만 점점 숨이 막힙니다.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지금 헤어지면 이 친구 같은 사람을 어디서 또 만날까? 헤어지면 이제 제 나이 33살 결혼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아무 결정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비 시어머님의 지나친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부모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기도 쉽지 않고 주변에 조언받을 어른도 많지 않아 용기 내어 사연 보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말엔 투유

아빠, 우리 행복하자

이수진 | 충북 청주시

아빠, 나 수진이야.

정말 오랜만에 편지하네. 편지 보면 아빠가 또 울컥하진 않을까, 슬퍼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

아빠가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던 게 벌써 10년 전 일이네. 그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학생이었고, 아빠는 지금보다 젊고 건강한 평범한 가장이었지. 당시 의사 선생님에게서 치료가 잘 된다고 해도 1년밖에 못 살 거라는 얘기를 듣고 우린 절망했어. 자식으로서 효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아빠를 떠나보낼까 대학 생활 내내 불안했던 것 같아.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아빠는 너무나 굳세게 이겨내 줬잖아. 아빠의 의지가 강해서였을까, 5년의 항암 치료 끝에 더 이상 암이 재발하지 않아 완치 판정까지 앞두고 있었지. 그때부터 난 아빠를 불사신 같은

존재로 여겼던 거 같아. "우리 아빠라면 이겨낼 수 있어. 남들이랑 달라!"하고 말야. 하지만 내 믿음과 달리 완치 판정을 앞두고 원망스럽게도 임파선, 뼈, 뇌에까지 암이 전이됐다고 했을 때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했어.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지겹게 이어지는 항암 치료 때문에 콩팥 기능까지 상실한 아빠를 보는 것마저 힘들었어.

오랜 시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버티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나랑 동생 다경이 결혼식에 와줘서 고마워. 아빠! 오늘 아빠와 함께 신부 입장하는 내 결혼식 DVD를 보고 한참이나 울었어. 지금은 다시 시작한 항암 치료 때문에 아빠 머리가 다 빠졌잖아. 그런데 영상 속 그날의 아빠는 정말 활기차 보이더라.

아빠! 내가 가정을 이루고 보니 한 가정이 지켜지기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더라. 아빠가 그동안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말 노력했다는 것, 그 안에 많은 눈물과 인고의 시간이 있다는 걸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어.

아빠! 그동안 가장의 무게를 버텨줘서 고마워.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아빠가 꼭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우리 아빠가 내 아빠인 게 정말 행복하거든. 나랑 다경이가 아빠의 행복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매일 검색해보는 폐암 카페의 환우들이 아빠의 10년 치료기를 보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 암이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감기처럼 바이러스처럼 이겨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 아빠를 통해 느꼈으면 좋겠어.

마지막 내 소망이 욕심인 걸 알지만 아빠와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다. 우리 가족의 든든한 가장, 우리 아빠! 아빠가 내 아빠여서 고마워. 정말 사랑해요.

주말엔 투유

아들아, 미안하고 고맙다

김점례 | 경기도 군포시

아들아! 엄마는 너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하구나.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 갑자기는 아니고 예전부터 늘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너한테 전할 기회가 생기질 않더라. 엄마 나이 70이 넘도록 미루고 미루다 드디어 용기 내서 말해본다. 어느 날 갑자기 네 곁을 떠나게 되면 내 마음을 끝내 전하지 못할까 봐 이렇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아빠와 나는 처음부터 맨손으로 시작했단다. 엄마는 결혼이란 과제가 쉽게 풀리지 않았어. 당시는 31살이 되도록 시집을 못 가면 '노처녀' 딱지가 붙을 때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근심을 사고 있었지.

그러다 외할머니 지인의 소개로 아빠를 만나게 됐다. 너희 아빠도 38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지. 아빠는 그때 사업을 하다 잘 못돼서 잠시 쉬고 있었어.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혼기를 놓친

공통점 때문이었을까. 그래도 서로 힘 합해 노력하면 남들처럼 살겠지 하는 생각으로 홀린 듯 결혼하게 됐단다.

그런데 엄마는 정말로 몰랐다. 그날로 내가 험난한 길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걸. 그래도 네가 태어날 때까지는 알록달록 무지개 꿈을 꾸기도 했어. 운명이란 게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니 누가 짐작이나 했겠니. 하지만 그것도 잠시, 네가 2살 되었을 때 아빠는 다리가 아파 죽겠다고 하더니 누워서 일어날 줄 모르더라. 그때 우리는 밭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기에 엉금엉금 기어 다니는 널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빠에게 맡기고 엄마는 꾸역꾸역 밭일을 하러 갔다.

지금처럼 어린이집 같은 곳도 없었기에 어쩔 수 없었지.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아기가 누워만 있는 아빠를 믿고 한나절을 울거나 떼쓰지도 않고 얌전히 있었다고 했어. 아마 그때부터 넌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사는 법을 배워버린 것 같다.

다행히 아빠의 증세가 회복되긴 했지만 그 후로도 병치레가 잦았고 이렇다 할 돈벌이를 하진 못했어. 자연스럽게 내가 우리 집 경제를 맡아 가장이 됐다.

도시로 나가 뭐라도 해보려고 무작정 이사를 했다. 밤낮없이 일만 했던 내 앞에서 3살 된 너는 무엇을 해 달라 보채지도 않고 알아서 나가 놀곤 했다. 사랑을 쏟아부어 줄 여유가 없었고 행여 걱정시킬 일을 만들까 봐 엄하게만 키웠구나. 추억이 될 만한 여행 한 번 못 데려가고 어쩌다 외식이라고 하면 짜장면이 최고의 메뉴였지.

그래도 넌 어떤 불평도 하지 않더라. 남들 다 다니는 학원 한 번 못 보내고 필요하다는 문제집 한 권 못 사줬어도 열등감 하나 없었지.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주위에선 날 부러워했지만 그 순간에도 엄마는 등록금과 하숙비 마련할 생각에

마음 놓고 좋아할 수만은 없었단다.

우려하던 일은 왜 이렇게 여지없이 벌어지는지. 네가 대학에 들어가 1년도 채 안 됐을 때 이웃 가게의 화재로 근근이 우리 집 생활을 해결해주던 작은 분식집마저 못하게 됐을 때 엄마는 참 버거웠다. 할 수 없이 남의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쓰러질 듯했지만 그래도 너를 대학에 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견뎠단다.

그런데 신은 참 가혹했어. 겨우 버티고 서 있는 나를 한 번 더 주저앉히더구나. 네가 대학 2학년이 되었을 땐 아빠 몸에 고약한 불청객이 찾아왔어. 아빠 치료비, 너의 학비 그리고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아빠 병수발은 누가 하나, 커다란 바위에 눌린 듯 움직일 수 없었고, 넋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다가도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벌떡 일어나곤 했다.

너는 자원해서 군대에 가야만 했지. 네가 입대하던 날 아빠가 치료를 위해 머물고 있던 곳으로 인사하러 왔을 때 따뜻한 밥도 못해 먹이고 고작 전철역까지 바래다주는 게 다였었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훈련소로 들어가기 전, 돌아서서 함께 온 부모님께 큰절을 하는 순서가 있다던데 우리 아들 옆에 아무도 없었으니 그때 넌 어떤 마음으로 절을 했을까. 너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쓸데없이 눈물이 흐르는구나.

네가 전역하고 복학했을 때도 아빠 치료비로 빚만 늘어났지. 형편은 그대로였는데 너는 돈을 아끼기 위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러 뛰어다녔고 장학금도 받게 되어서 엄마의 시름을 덜어 주었다. 졸업하고는 교사가 되어 일찍이 가정도 꾸려 잘살아주니 고맙다.

나는 너를 키우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기에 엄마로서 책임을 다했다



고 생각했는데 네 입장에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능력 없는 부모가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난감하고 답답할 때도 있었을 텐데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주고 여기까지 오느라 참 고생 많았다.

아들아, 홀로 자라게 해서 미안하다. 부모로서 언덕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럼에도 바르게 커 줘서 고맙다. 그저 고맙다.

여행의 즐거움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코로나19 전에는 걸핏하면 아침 첫 비행기로 나갔다가 마지막 편으로 돌아오는 당일치기 여행을 즐겼다. 그러다 일주일 휴가를 낼 수 있으면 넉넉하게 공부를 많이 해서 왠지 끌리는 곳을 골라 갔으니 여행에 쌓인 내공이 많은 편이다.

여행 경험 덕에 2005년 MBC-TV의 '행복한 수다'로 8개월 동안 송은이, 박미선과 셋이서 금요일 낮에 작은 트렁크 챙겨 떠나서 월요일 새벽에 돌아오는 일정을 소화했고, 시청률보다는 소수정예의 마니아가 많았던 덕에 네팔부터 시작해 강화도(마지막 종편)까지 잘도 뭉쳐 다니면서 갖은 고생을 한 셈이다. 당시만 해도 그런류의 방송은 처음이었고 협찬 개념도 전무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수록 외주회사는 적자가 쌓여갔다. 생각해보면 그 후에 길 위에서 만드는 많은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효시였던 것만은 틀림없었다. 여자로 꾸려진 프로그램은 우리가 유일했고 후로도 '배틀 트립' '짠내 투어' 등등 여행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졌다.

우리 부부도 많은 여행을 함께했지만 둘이 오붓하고 재미있게 즐긴 여행은 '시코쿠 섬' 여행이었다. 일본을 이루는 4개의 섬 중 제일 작은 섬, 고유의 문화, 전통,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고 정서적으로는 일본인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서 요즘도 삿갓 쓰고 지팡이를 든 흰옷의 순례자들을 볼 수 있다. 순례 도중 죽기도 하기 때문에 흰 옷은 수의가 되기도 한다.

우선 숙박시설 좋은 곳을 예약하여 나이가 나이니만큼 잠은 편히 자는 쪽으로 고르고, 기차표를 끊어 기차 타고 이동하거나 걷다가 지치면 택시도 타는 자유로운 여행이었다. 그룹투어의 쫓김과 서두름 없이 우리 둘의 속도에 맞춰 구경하고, 맛집 찾아 좋은 음식 먹고, 잘 쉬던 기억이 있다.

시코쿠 섬에선 마쓰야마가 인상적이었다. 전차가 다니는 아담한 도시! 마쓰야마 성을 보고 내려오는 길에 아주 감각적인 이마바리 타올 전문점이 눈에 띄었다. 다양하고 고운 무늬들이 파스텔화처럼 눈에 즐거웠다. 그곳에서 타월이 작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남편은 오랜 미국 생활 버릇으로 엄청 큰 타월을 쓰고, 난 얇은 수건을 쓴다. 세탁하기도 말리기도 힘든 큰 타월 말고 얇은 걸 쓰라 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물 부족국가인 거 몰라요?" 해도 싫단다.

이번 주말 조카딸을 불러내어 모처럼 시장에 갔다. 그 유명한 남대문 대도 지하상가를 모른다기에 결혼 후 살림도 났으니 시장을 두루 알아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였다. 나는 얇은 타월이 필요했는데 조카딸이 블로그에 예쁜 수건 가게가 있었다며 한번 찾아가 보잔다. 거기서 난 드디어 주민의 반수가 면직물 사업에 종사하는 면공업 도시, 300개 이상의 수건 공장이 있는 곳, 이마바리 타월을 만났다. 그 도시에 못 가본 아쉬움이 계속 있었는데 임신한 조카딸 아이의 출산용품과 얇은 타월을 사서 돌아왔다. "이모, 우리 일본 여행 다녀온 것 같아요." 조카딸이 말했다. 최근 들어 무슨 물건을 사면서 이렇게 설레고 즐거웠던 적은 없었다. 타월 몇 장으로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22년 전의 약속,
2022년 2월 22일 2시 22분

서경석 | 여성시대 진행자

2022년 2월 22일, 여성시대에서 특별한 사연을 소개하게 되었다.

사연의 주인공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때, 담임선생님이 제안했던 약속의 날이 다가왔는데, 선생님께도 동창생들에게도 연락할 방법이 없어 전국에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도움을 청한다는 내용이었다.

22년 전인 2000년, 사연 주인공을 예뻐했던 번동 초등학교 6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제안을 했다. 22년 후인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22분에 다시 만나자고.

주인공의 이름은 '이둘이'였다, 성은 '이', 한글 이름 둘이. 숫자로만 쓰면 '222'가 된다. 다른 학생들에게는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레 희미해질 수 있는 약속이었지만, 둘이 씨에겐 그렇지 않았다.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선생님, 몇몇 단짝 친구들과 메일로 소통하면서 간간히 약속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흘러 둘이 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와 연락이 끊겨 버렸다.

워낙 오래 전 일이어서 다른 친구들이나 선생님은 잊는 게 당연할 수 있겠지만, '이둘이' 씨는 절대 잊을 수 없었던 약속. 사회인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이루어 더욱 바삐 살다 보니 어느덧 약속의 날

이 다가왔다. 고민 끝에 '여성시대'에 도움을 청한 것이다.

이둘이 씨의 사연을 소개하는 내내 내 마음도 소년처럼 설레고, 전화 연결을 통해 둘이 씨가 곧 약속 장소로 나갈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난 후부터는 나도 떨리기 시작했다. 이둘이 씨는 약속 날인 2월 22일에 맞추어 미리 휴가를 내어놨다고 했다. 오전에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메모를 해놓고, 번동 초등학교로 이동하여 친구들과 선생님을 기다릴 예정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과 마지막으로 소통했을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나기로 했던 기억이 있어서였다.

정말 동화처럼 아름답고 드라마처럼 감동적인 사연이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다. 국민방송 '여성시대'에 소개되었지만, 둘이 씨의 친구들은 한창 생업에 바쁠 30대 중반이기에 실시간 청취가 쉽지 않다. 그리고 방송을 들었다 하더라도 오전 10시에 듣고 오후 2시에 번동으로 이동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

방송이 끝났는데도 둘이 씨의 약속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못했다. 방송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휴대폰 일정표에서 2시에 수영 강습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때에도. 결국 나는 수영 선생님께 죄송하단 문자를 보냈고, 방송사 지하에 있는 꽃집에서 둘이 씨에게 전할 꽃을 고르고 있었다. 단 한 명이라도 나와서 소년 감성 이둘이 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랐지만 만에 하나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나라도 가서 조용히 위로해주고 싶었다.

1시 30분 경 번동 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정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전화 연결 때, 둘이 씨가 2시부터 가 있을 예정이라 했기에 근처에 차를 대고 기다렸다. 2시 22분 전까지는 둘이 씨의 낭만거사에 방해되지 않으려고 2인 1조 잠복형사처럼 매니저와 함께 차 안에서 숨죽

이고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2시 10분경이 되자 30대 남성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배너'를 들고 학교 정문 앞에 나타났다. 배너의 위쪽에는 '혹시 오늘 약속 있어서 나오신 분?'이라고 쓰여 있고, 밑 부분에는 30여 명 사람들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져 있었다. 둘 중 한 명은 이둘이 씨가 확실해 보였다.

드디어 2시 22분. 더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다. 5분 정도 더 지켜보다가 나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리고 조심스레 당시 상황을 물었다. 예상대로 둘 중 한 사람은 이둘이 씨였고, 또 한 사람은 전화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던 제일 만나고 싶은 친구 중의 한 명인 김석범 씨였다. 석범 씨는 오전에 여성시대를 들은 지인에게서 전화를 받고 연락이 끊겼던 이둘이 씨의 전화번호를 어렵게 수소문해서 통화가 되어 같이 나온 것이었다. 이둘이 씨는 석범 씨를 만나기 전 세종문화회관에 들러 그곳으로 올지도 모를 친구들과 선생님을 위해 메모를 남겨 놓고 번동 초등학교로 왔다. 2시경에 도착했지만, 후문으로 올지 모를 친구들을 위해 경비 아저씨께 말씀드리고 오느라 2시 10분에 정문에 도착한 것이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둘이 씨 이름처럼 혼자가 아닌 '둘이'어서. 석범 씨에겐 안된 일이지만 최근 팔에 깁스를 하는 부상을 당해 석범 씨가 쉬는 기간이어서 함께할 수 있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발표 날만큼이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준비한 나의 꽃도 '위로'가 아닌 '축하' 선물이 될 수 있었다.

둘이 씨의 아내가 직접 디자인했다는 배너, 약속 장소에 나온 사람들이 매직펜으로 덧칠하도록 만든 밑 부분에 두 사람의 이름이 까맣게 칠해졌다. 아직 흐릿하게 남아 있는 이름이 많다. 앞으로 하나둘씩 덧칠되어 새까매질 배너를 기대한다.

은행이 전통시장 디자인을 한다구요?

IBK희망디자인 프로젝트 _ 전통시장

달라진 입구며 간판 때문에 시장이 다시 북적이니까
처음 장사하던 때처럼 신이 난다는 사장님
IBK기업은행이 전통시장 디자인으로
사장님들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IBK희망디자인 프로젝트 _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들의 간판과 차광막, 로고 등을 디자인하고 설치하여 골목상권의 환경을 재정비해 주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 총 260여 개의 소상공인 터전과 함께했으며, 2021년에는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디자인을 지원하였습니다

IBK기업은행